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쫓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9월 5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핑크빛 물든 도심사찰' 가을의 색깔은 이제 '핑크'다. 서울 조계사는 10월 8일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주제로 한 조계사 국화향기 나눔전을 시작했다. 올해로 10회 째를 맞은 이번 조계사 나눔전에는 다양한 가을국화와 가을꽃이 선보였다. 특히 핑크빛의 핑크뮬리는 불자를 비롯한 일반대중의 많은 눈길을 끌고 있다. 가족과 연인, 외국인 등 조계사를 찾은 많은 대중들이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설 정도로 핑크뮬리는 조계사의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행사는 11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가을 산사 수놓던 축제 취소 · 비대면 전환

코로나19 여파로 가을 사찰행사도 '위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0월경 집중된 사찰 행사들
코로나 사태에 취소 잇따라
화엄음악회 · 선운문화제 이어
백양사 단풍축제도 전면 취소
월정사 · 전등사는 비대면전환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다. 특히 불교계는 전국 교구본사 등 큰 사찰의 개산대제가 10월경 집중적으로 몰려있는데다, 꽃무릇, 애기단풍 등 가을절경으로 장엄한 사찰의 문화행사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전국 산사가 들썩이는 야단법석이 펼쳐지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가을 정취에 흠뻑 물든 산사의 야단법석을 쉽사리 만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맘때 전국 사찰에서 개최했던 문화행사와 산사음악회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잇따라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가을을 상징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한 장성 백양사의 애기단풍축제와 구례 화엄사의 화엄음악회, 고창 선운사의 선운문화축제가 전면 취소돼 아쉬움을 전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인원제한 등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유효한 가운데, 유명세만큼이나 많은 인원이 몰릴 확률이 높은 행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무대에 오르면서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한 구례 화엄사의 화엄음악회는 올해 15회를 맞았지만,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피해까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해 아쉬움을 더했다. 우리나라 산사음악회를 대표하는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다.

사찰이 처음 산문을 연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나 추모제 등 남다른 의미가 있는 법석은 축소해 최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남 대흥사(주지 법상)는 10월 31일 '서산대사 추계제향'을 대폭 축소해 봉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제향과 호국의승추모제, 세미나 등 최소한의 행사로 그 의미와 가르침을 기린다는 취지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10월 26일 '제20회 미황사 괘불재 그리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미황사 측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 전면취소를 고민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342호 괘불탱화 보수불사를 회향하고 대웅보전 해체보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부득이 축소 진행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인 범어사(주지 경선)와 해인사(주지 현응)도 10월 18일과 16일 개산대재와 관련 행사들을 축소 진행했다.

사찰 문화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띈다.

대구 동화사(주지 사요)가 매년 진행해 온 '승시'도 올해는 현장 인원을 축소하고 유튜브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동화사와 팔공산승시축제봉행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화사 일원에서 '제11회 팔공산 승시축제'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개막법요식과 승시대동한마당, 전시마당 등 현장행사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인원제한 및 동선간 접점을 최소화하고 승시 온라인경매, 온라인 골든베르 랜선 사찰음식 만들기 등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0 부산 팔관회'를 봉행한다. 팔관회는 매년 3일 규모의 성대한 법석으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하루로 축소하고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참가를 원하는 대중을 위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법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의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올해 2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행사가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염두해 전체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목받았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9~11일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의 전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 현장에 머무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TV 등을 통해 송출했다. 특히 도량 내 곳곳에 대형 전광판 화면을 설치해 문화행사와 공연, 학술세미나 등 전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형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념 스님은 "코로나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올해 17회째 진행되는 '오대산 문화축전'을 '오대산문화포럼'으로 명칭을 바꿔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위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오대산이 지닌 문화의 향기와 우리가 추구해 온 생명, 평화, 치유, 명상 등 다양한 내용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

"수도권 포교 활성화 위해 강남 · 강북 · 인천 분구해야"

퇴휴 스님, 불교학연구 발표 논문서 주장

직할교구, 행정체계와 불일치
교구 사찰 616곳, 조직비대해
"교구 분리로 조직 개편 필요"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직할교구가 강북 · 강남 · 인천교구로 분구하고 조직을 새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객원교수 퇴휴 스님은 〈불교학연구〉제64호에 발표한 '조계종 직할교구 분구 방안 연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퇴휴 스님은 수도권 불교와 직할교구의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변화 방향을 모색했다. 스님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조계종 전체 소속 사찰은 공찰 989개소, 사설 1755개소, 산내암자 222개소, 포교소 206개소로 총 3172개소다. 이중 직할교구 사찰은 616개소로, 서울 위치 사찰은 193개소 · 경기 위치 사찰은 132개소 · 인천은 29개소다. 이밖에 252개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다.

이 같은 사찰 분포 통계를 통해 퇴휴 스님은 교구와 국가행정체계가 불일치되고 교구 규모가 비대화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퇴휴 스님은 "직할교구 사찰 중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은 354개로 나머지 262개 사찰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는 다른 교구도 마찬가지"라면서 "직할교구 관할 구역과 국가 행정체계의 불일치는 지역의 교통권, 생활권, 경제권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포교 · 신행활동의 비효율성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구종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신도시 지역의 포교 공동화 현상이 가속돼 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서 퇴휴 스님은 직할교구를 서울 강북 · 강남과 인천으로 세 분할하고 총무원장을 교구장으로, 강북 · 강남 · 인천교구 본사 주지 대리가 교구장 대리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휴 스님은 "수도권 포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직할교구를 정비하고 현 상황에 맞게 분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특집 · 상월선원 만행결사 2 · 3면

전기가 필요없는 태양광 정원등

원리 상단에 부착된 태양전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밤에 자동으로 불이 켜진다.

장점 • 전기료가 들지 않는다. •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이다.
• 전선이 없으므로 배선공사가 필요 없다.
• 자동으로 충전과 점등이 되므로 부재시 방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할인행사 기간 11월 30일까지

1 태양광 정원등 250cm ~~380,000~~ → 280,000
2 태양광 정원등 240cm ~~550,000~~ → 395,000
3 태양광 정원등 220cm ~~340,000~~ → 260,000
4 태양광 정원등 220cm ~~340,000~~ → 260,000
5 태양광 정원등 190/50cm ~~240,000~~ → 168,000
6 태양광 정원등 100cm ~~200,000~~ → 130,000
7 태양광 잔디등 66cm ~~80,000~~ → 40,000

태양광 벽등
8 ~~180,000~~ → 99,000
9 ~~80,000~~ → 50,000
10 ~~88,000~~ → 45,000
11 ~~88,000~~ → 45,000
12 ~~150,000~~ → 105,000

태양광 문주등 및 랜턴
13 ~~250,000~~ → 160,000
14 ~~180,000~~ → 99,000
15 ~~88,000~~ → 45,000
16 ~~80,000~~ → 50,000
17 ~~80,000~~ → 50,000 ~~70,000~~ → 40,000

태양광 에너지 전문기업 코스모스환보 COSMOSHUANBO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61 대우테크노파크 A동 402호 연락처 : 032-670-8998,8263 | FAX : 032-670-8368
www.cosmoshuanbo.com 계좌번호 : 농협 216014-51-257956 (예금주:오승열)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 10월 11일 새벽부터 28km를 걸은 대중들이 피로를 잊고 아도화상 헌향재를 개최했다. 고구려에서 신라로 수만리를 걸어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순례단을 굽어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헌향하기 위해 천년대향로를 건네받는 모습.

아도화상 신라불교 전법 의지 되새기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서 헌향재**

5일간 130km걸어 도착한 초전지서
순례단들 불교 중흥을 새롭게 다짐
1600년 원력 상징 천년대향로 공양

구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수만리를 걸은 아도화상의 모습이 이랬을까.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모습은 5일간 130km를 걷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법구도의 의지는 높아만 보였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은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하여 아도화상 헌향재를 진행했다.

이번 헌향재를 위해 결사대중은 10일 숙영지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대구서부터 4일간 100여 km를 걷고 다시 5일차 28km의 구간. 자원봉사자들과 의료팀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수일간의 순례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10일까지 관절염증과 근육통, 물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만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11일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초전지 초입부터 구미 지역민들은 꽃비를 뿌리며 결사대중을 맞이했다. 점심공양을 겸한 잠깐의 휴식시간 후 결사대중은 신라불교초전지 아도화상 동상 앞에서 헌향재를 열었다. 헌향재에서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결사대중을 대표해 천년대향로를 아도화상 전에 올렸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였다. 이어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의 순으로 헌향이 이어졌다.

헌향 후 격려사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지난 겨울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수행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중무문관 수행으로 참선수행이 한국불교 수행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켰고, 사부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며 "부처님이 걸어서 전법을 하셨듯, 올해는 만행의 형태로 결사를 추진함으로서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걷는 수행으로 불교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고령자인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아도화상이 신라불교를 개척한 역사를 배웠지만 현지에 와서 보는 것은 다르다.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결사를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향재 후 결사대중은 신라불교초전지 초전기념관을 참관했다. 아도화상 진영을 비롯해 이차돈 순교비 등을 보며 결사의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11일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결사대중을 찾아 격려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자비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결사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펼쳐보이는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남은 기간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하나로 모아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10월 12일 경북 의성 낙단보 마애불 앞서 열린 법회에서 2010년 10월 당시 총무원장으로 마애불 보존에 앞장섰던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오른쪽 사진은 낙단보 구간 일일참여 순례를 진행하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및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순례단의 모습.

10년 거슬러 만행결사와 만난 마애불 원력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12일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서 법회**

2010년 10월 마애불 발견 후 10년
회주 자승 스님 불사 원력 서린곳
6일차 11km 걸어 법회 후 방생도

2010년 10월 6일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낙단보 마애불. 공사과정에서 훼손될 뻔한 마애불을 지켜내고 마애사 불사까지 일군 원력이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만행결사 자비순례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력과 맞닿았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자비순례 6일차인 10월 12일 경북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 앞에서 법회와 함께 방생의식을 가졌다. 2010년 직접 마애불 지키기에 나섰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감회가 남달라 보였다.

12일 새벽 3시 40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부터 12km를 걸은 상황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결사대중은 낙단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애불을 참배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의 만행결사 순례길에서 낙단보 마애불이 있는 의성 생송리를 거쳐 가는 길은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가는 코스다. 그럼에도 결사대중이 낙단보 마애불을 향한 이유는 마애불을 지켜낸 원력과 불교 중흥을 꿈꾸는 만행결사 원력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낙단보 마애불로 알려진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2010년 10월 6일 낙단보 구간 발파 작업 중에 발견됐다. 성보를 잃어버릴 위기에 조계종은 10월 20일 성명을 내고 26일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이 당시 조계종은 정부당국에는 소중한 성보유산을 보존해줄 것을, 불자들에게는 성보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12월부터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 매일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1년 2월 1000여 사부대중이 생명살림 1080배 정진을 올리며 결국 마애불을 지켜냈다.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부처님이 걸은 전법의 길을 따라 나라가 평안해지고 지역불교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사대중이 이 곳을 찾았다. 바위를 파괴하려다 부처님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자승 스님께서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이후 2017년 마애사 건물 기공까지도 있게 해주셨다"며 자승 스님을 비롯해 뜻을 모은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결사대중을 대표해 중앙종회 부의장 법원 스님은 "순례와 불사에는 함께 이를 이루는 수많은 대중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날 법회에 함께 참여한 고운사 등 지역불자들과 결사대중을 격려했다. 마애불 법회 이후에는 낙동강 유역의 생태회복을 기원하는 방생도 진행됐다.

낙단보 마애불을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기치로 건 만행결사도 당시 불자들이 결집을 이뤘듯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의성=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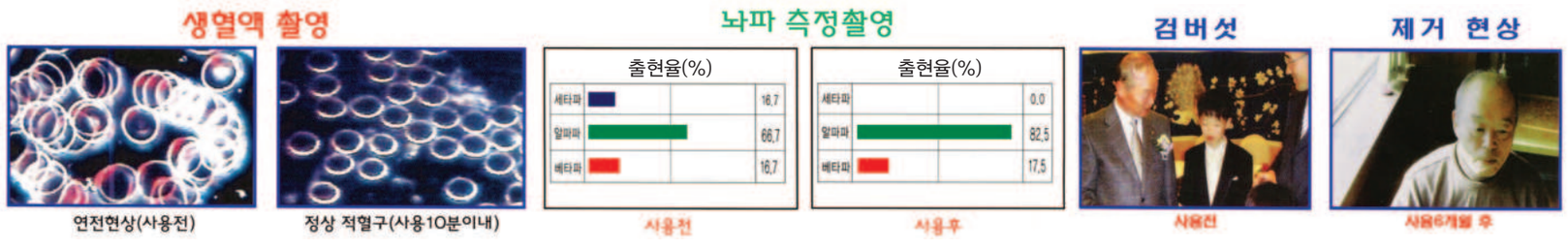
10월 16일 현재
1일차 동화사 입재식 ▶ 5일차 신라불교초전지 132km ▶ 6일차 낙단보 마애불 163km ▶ 9일차 문경 대중공사1 212km ▶ 11일차 문경새재 368km ▶ 14일차 충주 중앙탑 350km ▶ 17일차 양평 대중공사2 411km ▶ 20일차 상월선원 488km ▶ 21일차 봉은사 회향식 50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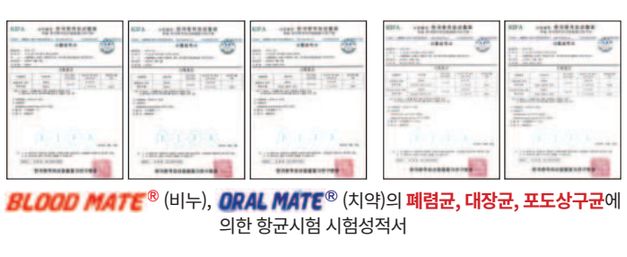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상월결사, 붓다 정신 계승한 포교 · 수행법”

상월선원, 10월 15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세미나

문경=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만행결사는 붓다의 정신을 계승하는 포교와 수행의 정당한 실천 방법이다.”(자현 스님)

“상월 결사는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읽혀진다.”(혜명 스님)

“만행결사는 역동적 ·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불교를 만들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다.”(황순일)


자현 스님

혜명 스님

황순일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월결사 의미 · 과제’ 주제 다뤄

천막결사, 도심포교 新모델 주목

만행결사, ‘순례 · 교육’ 모두 갖춰

‘중생에게 다가서는 불교’ 지향해

지난해 겨울 시작된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올해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10월 15일 문경 STX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출 · 재가 불교학자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의 전반을 분석하는 소논문을 발표했으며,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이를 경청했다.

상월결사, 21세기 새로운 구법행

발제자로 참여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써 상월결사’를 통해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고려시대 지눌의 수선사 결사 정신이 온축돼 있으며, 만행결사 역시 붓다가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불교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승려의 문제”라고 지적한 자현 스님은 고려불교를 변화시킨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2년 7개월 동안 고려에 머물며 무생계를 설한 지공선현의 일화를 예로 들고, 변화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자현 스님은 “지눌의 개창 이후 약 170여년 만에 송광사는 동방제일도량이라는 최고 존칭으로 불리게 된다. 이는 지눌이 추구한 선수행과 청정성의 회복이라는 결사 운동이 고려불교에 강력한 족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면서 “천막결사라는 최소를 통한 청정과 무문관이라는 치열한 수행은 지눌과 지공을 결합하는 최상의 가치를 도심 속에서 구현한 현대불교의 획을 긋는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10월 7일 입재법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행결사에 대해서는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확인됨을 설명하고 순례의 가치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있다고 자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당나라 현장 스님의 인도 구법행의 특징을 교육과 순례에 있음을 상기시킨 자현 스님은 “현장의 인도 구법은 교학적 공부와 실천적인 성지순례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법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현 스님은 만행결사가 21세기 새로운 방식의 구법행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당나라의 현장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며 “만행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생 찾아가는 불교로 전환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을 모색하다’ 발제를 통해 상월선원이 보여준 일련의 결사들은 “기존의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닌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가 태동한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생에게 유리(遊離)돼 중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중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600년 산중불교 프레임을 꼽았다. 또한 현대 한국불교가 타성에 젖어 산중불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상월결사는 위례신도시 건설현장 내 비닐 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대중이 시끌벅적한 야단법석 가운데서 진행된 동중정(動中靜)의 새로운 결사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만행결사, 간디 소금 행진 연상

‘상월결사의 역사적 의의’를 발표한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불교대학장)은 상월선원 일련의 결사들이 현대에 맞게 요구되는 변화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특히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황 교수는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상찬했다. 그동안 한국불교 재가자는 큰 사찰의 선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황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행결사에 대해 1930년 ‘사띠야그라하’를 표방하고 24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과 연결된다고 봤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식민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로 시작해 행진이 끝날 즈음에는 동참자가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황 교수는 “간디의 소금행진은 정치 · 사회적 요구로 출발했지만,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고창신 결사운동… 통일순례로 확장을”

불교학자가 말하는 상월결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이 10월 15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개최한 ‘상월선원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발제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불교학자들이 참석해 다채로운 의견들을 제시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상월결사가 내세우고 있는 ‘불교중흥 · 국난극복’ 캐치프라이즈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상월결사의 불교중흥은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는 선언이며, 국난극복은 한국불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봤다.

“상월결사의 태동은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이 지난 2011년 총무원장 재직 당시 시행했던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이라고 주장한 조 교수는 “자성과 쇄신결사 운동 이후 상월결사가 당대의 불교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전통결사와 같은 배경을 하지만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결사운동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기룡


김용현


최성규


송일호


최응천


석길암


이병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월결사의 확장성에 대해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하는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만행결사가 원만성취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라면 자비순례를 통일 · 평화순례로 확장하는 것도 좋다”면서 신계사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순례하는 금강산 만행결사와 고성서 파주까지 250km에 이르는 DMZ평화순례를 제안했다.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상월결사는 4차산업혁명시대 불교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한다. 이같은 고민은 한국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일호 동국대 불자교수회장은 “‘중생에게 찾아가는 순례불교’라는 발표에 공감이 간다”면서 “자비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만행결사를 통해 떠오르는 것이 〈왕오천축국전〉을 쓴 구법승 혜초 스님과 〈삼국유사〉를 집필자 일연 스님이다. 모두 구법 순례를 통해 기술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현재 불교중흥,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도 일종의 구법행이다. 이에 동참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상월결사 자비순례를 옆에서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든 질문이 ‘나는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였다. 이 같은 고민들은 발심과 변화의 시작”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순례길을 바라보는 불자들도 이런 고민들을 함께하며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한다”말했다.

이병두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은 자비순례의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출발할 때 모두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500km의 대장정을 마치면 대다수가 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동참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도반과 문중, 종단,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태우기도, 세상을 밝히기도 한다. 그런 기대를 해본다”고 강조했다.

문경=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이 모이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일은 만고에 빛날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佛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法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가칭)위례신도시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僧
· 불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 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체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나눔의집, "이사진 부당 해임시 소송 불사"

경기도청, 10월 12일 이사진 대상으로 청문회

이사진, 19개 해임사유 소명
경기도, 10월말경 처분 확정
사외이사 3명 임명무효 거론
해임 확정시 임시 이사 선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감사결과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눔의집 이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관계 및 입장을 소명했다. 특히 이사들은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해임 사유 중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해명하며 "운영문제를 초래한 실무진의 사임 등 시정조치가 이미 이뤄졌고 행정미비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에서 해임은 과한 처분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이사진의 소명에도 부당한 해임처분을 확정할 경우, 법적 소송의 가능성도 함께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청(도지사 이재명)은 10월 12일 도청 1층 청문장에서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이사진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올 9월 나눔의집 5명 이사에 발송한 사전통지서에서 △회계 부정 △인권침해 △법 위반 및 법의 명령위반을 비롯한 19개 사유를 들어 임원 해임명령 및 집무집행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경기도가 해임처분을 예고한 이사 5명 중 상임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이 참석했으며,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 소장이 배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성우·화평 스님은 경기도청이 해임 사유로 제시한 19개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청문회는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청문회에서 해임 사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운영 실무자들의 행정적 미비사항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지침을 세밀히 살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다만 이사진은 문제점이 드러난 후 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후원금을 악의적으로 유용, 횡령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해임의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나눔의집 이사진이 소명을 위해 경기도청 청문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기도청의 해임사유 중 상당수가 편향조사 및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사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던 시정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청문회를 통한 소명절차에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최종확정할 경우 나눔의집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임 처분이 확정될 시 나눔의집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내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결의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결정족수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는 총 11명. 이 중 5인에 대한 해임 예고와 별개로, 기존 사외이사 3명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여부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사 5명에 대한 해임과 함께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임명 무효가 확정할 경우, 정작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경우 경기도나 광주시가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청 처분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해임명령 취소 및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사회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소명에도 경기도가 이사 5인에 대한 해임을 확정할 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말 나눔의집 이사회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계종 직영 '불교용품매장' 문 열다

도반유통, '승소' 매장 개소
불상·불화 제작 지원 추진
사찰·불자기업 상품 런칭도

조계종이 직영 불교용품매장을 새롭게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불교용품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상품, 불상·불화 제작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회장 원행) 산하 도반유통은 10월 14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 '승소' 매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 도반유통은 온라인 쇼핑몰 '승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승소 오프라인 매장 개소로 판매 구조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매장에는 김·국수·생수 등 기존 종단 브랜드인 '승소' 상품을 비롯해 염주·불상·차·다구 등 스님과 불자들이 자주 찾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도반유통은 '승소' 매장을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종단 인증 연등·승복·차·향·불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스님과 사찰에 제공하고, 불교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사찰, 불자 소상공인들과의 런칭을 통해 이들의 제품을 상설 전시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산하 도반유통은 10월 14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 '승소' 매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도반HC가 설립한 '연구소 불모'를 통해 전각의 건립과 사찰운영에 필요한 불상 및 탱화 등 불모 상담 및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천연 수제 침향 등 승가에서 유래한 전통문화 상품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는 도반HC 회장 원행스님(총무원장)과 대표이사 지현스님(조계사 주지)을 비롯해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 도반HC 이사 스님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훌륭한 매장을 만들어준 도반HC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많은 사부대중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님들과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들은 승소 매장 이용 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매장 관리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은 10월 11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가사불사 점안 및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관음종, 13년만의 법계품서식 봉행

10월 11일 낙산 묘각사서
법륜 스님 대종사 품수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10월 11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가사불사 점안 및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관음종이 가사 봉정과 법계품서를 진행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법주 홍파 스님은 이날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인천 흥륜사 주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새롭게 거듭난 76명의 스님들에게 가사를 전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애초 관음종은 지난 5월 18일 법계위원회를 열고 종단 스님들에 대한 법계고시 등 절차를 통해 법계를 최종확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품서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5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태허 조사 탄신 116주년을 기념하며 간소한 형태로 진행된 것.

이날 품서식에서 법주 홍파 스님은 인천 흥륜사 주지 법륜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이를 상징하는 25조 가사와 주장자를 하사했다. 이어 대선사 법계는 창녕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 등 5명이, 종사 법계는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등 14명, 법사 품계는 경주 법안사 주지 운오 스님 등 19명, 대덕 품계는 묘각사 템플스테이 팀장 여은 스님 등 23명에게 품서됐다.

이날 법주 홍파 스님은 "가사는 무릇 인욕의 갑옷이므로 이 가사를 수하고 방패로 삼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인재양성 지원할 장학위원 위촉

승가교육진흥위, 10월 14일
종호 스님 등 12명에 위촉장



조계종 승가교육과 인재양성을 지원할 장학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0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기 장학위원 위촉식〈사진〉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조계사 주지 지현, 봉은사 주지 원명, 도선사 주지 도서, 보문사 주지 선조, 선본사 주지 법성, 중앙승가대교수 승원, 동국대 교수 정덕, 진관사 주지 계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등 12명이다. 6기 장학위원장은 종호 스님이, 간사는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장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스님은 "장학위원직 수락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 후학교육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도 "승가교육은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후학 양성을 위해 원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학위원장 종호 스님은 "여러 위원 스님들과 힘을 모아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스님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지희 기자

40년 맞은 10·27법난 아픔, 문화로 승화

조계종, 27일 당일 천도재 및 특별 전시회

타종·행사 유튜브 생중계 예정
전국 불교대학 신도교육 진행
피해자 혜성 스님 시집 발간도

군사정권이 자행한 불교 탄압사건인 10·27법난 발생 40주년을 맞아 법난의 아픔을 불교가 지닌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조계종은 10월 27일 법난 40주년을 추념하기 위해 전국사찰 타종과 천도재, 그리고 법난 기념식 및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먼저 40주년 천도재가 10월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40주년 천도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10·27법난 피해자, 신도 등 50명 안팎이 참가할 예정이다.

천도재에 앞서 전국사찰에서는 사시예불을 기해 오전 10시부터 추념타종이 진행된다. 전국 타종은 조계종과 조계사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23일부터 사찰 일주문마다 추념 현수막을 게시하여 10·27법난에 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조계종은 이날 각종 법회에서 10·27법난을 주제로 법문을 진행하며 전국 불교대학과 협력해 이날부터 신도교육에서 법난에 대해 안내한다.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봉은사 등에서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전시회는 10·27법난 종단의 대응, 국방부 과거사위 및 관련 법률 제정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모습과 피해 현황을 전한다.

10·27법난 추념식 또한 40주년을 맞아 조금 더 특별하게 열린다. 기념식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0·27법난과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조계종 사회부장 성공 스님의 경과보고와 10·27법난을 추념해 제작한 CI가 소개된다. 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기념사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 및 피해자 대표 스님의 인사말, 김영주 불사추진위 사무국장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보고 등도 함께 진행된다. 끝으로 10·27법난의 아픔을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으로 1부는 마무리된다. 2부에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회도 마련된다.

한편,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피해자인 故혜성 스님이 직접 쓴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도 출간됐다. 혜성 스님은 1980년 10·27법난 당시 모진 고문과 함께 승려 자격을 잃어야만 했다. 당시 고문과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던 스님은 2018년 7월 25일 원적에 들었다. 이번 시집은 혜성 스님의 속가 동생인 이근우 前 청담고 교장이 혜성 스님이 생전 친필로 쓴 시 67편을 엮어 낸 것이다. 노덕현 기자

가을에 떠나는 기차여행 힐링 '템플스테이' 운영

8지역 1박2일 코스로 구성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가을철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기차여행은 각 지역 템플스테이와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코스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최대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둬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남권에서는 대흥사, 송광사, 증심사 템플스테이, 전북권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 템플스테이, 경상권에서는 쌍계사,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총 8개 코스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기차여행 코스에 따라 낙안읍성,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화개장터 등의 지역 명물을 둘러볼 수 있다.

전남권 코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전북 및 경상권은 해당 지역 전통시장의 장날이 열리는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이번 코스여행에는 왕복 열차요금과 템플스테이 참가비가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전화 1544-7755로 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개산 1226주년 기념 불교문화축제 개최

봉은사, 10월 17일~26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7일(음력 9월 1일) 개산1226주년을 맞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문화축제 행사를 봉은사 경내에서 봉행한다.

1226주년 개산대재 행사는 10월 17일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헌향, 헌다, 헌화, 권공의식 등의 역대조사 다례재 봉행을 시작으로 봉은사 경내와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진전시회, 코로나19 위로기금 마련 행복나눔바자회가 진행된다.

10월 19일에는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하고 봉은사 전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 의식을 봉행하며, 법보의 공덕과 개산대재의 참된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24일, 25일에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 49일기도 회향 의식을 봉행하여 옛 불교수행전통과 명맥을 잇는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이고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0월 26일 미륵대불광장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치유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과 현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을음악회를 선보이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그밖에 봉은사에서는 불교문화축제 기간 중 템플문화한마당,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행사, 불화, 지화, 다구전시,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주최하는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봉은사는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며 "산사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나전칠기 찬란함 담은 수월관음도 제막

마산 정법사, 10월 10일 점안식 봉행

역사성 · 지역문화 특성 반영
신중목탱화 · 산신각 점안도
영축 다도회 20주년 기념식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가 지역과 역사 그리고 지역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새로운 형식의 수월관음도를 선보였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수월관음삼존도, 신중탱화 및 산신각 점안식' 을 10월10일 정법사 4층 원통보전에서 봉행했다.

정법사 수월관음도는 30여 색의 유색을 입혔으며 옷칠과 수 만개의 자개로 조성된 새로운 형식이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화려함의 극치를 드러낸다는 평가다. 아울러 바다와 인접한 마산 지역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을 새겨 넣어 의미를 더했고 경봉 스님의 글씨도 담았다. 경봉 스님은 정법사 초대 주지로 경남 포교의 기틀을 세웠다. 경봉 스님이 작성한 '관음정진' 을 새겨 사부대중에게 포교와 정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통보전에는 은행나무 신중목탱화와 산신각 점안식도 함께 봉행됐다.

점안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국장 종현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김성수 통영 옷칠 관장, 김규리 불모 등이 참석해 점안의식을 축하했다.

점안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예불 △점안식 △인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문 스님은 "이번 중창불사는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를 주제로 삼았다"며 "새로운 기법으로 조성한 수월관음도가 완성도가 뛰어나고 색감도 은은해 아름답다.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관음도량으로 대작불사를 이루었다. 모두가 동참하는 관음보살행으로 관음도량의 완성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리 불모는 "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의 도움으로 13개월 동안 정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며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정법사 영축다도회가 20주년을 맞아 다도를 통해 선의 정신을 전하며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 선두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영축다도회(총재 도문)는 10월 9일 '영축다도회 20주년 기념 영축 차 향기' 입재 법회를 정법사 2층 만불전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영축다도회 총재 도문 스님(정법사 주지), 대구 삼성암 각정 스님, 허성무 창원 시장, 강병곤 합포구청장, 박옥순 도의원, 황종규 문화관광국장, 밀양 만우도예 윤태완 회장 및 회원들이 동참해 축하했다.

법회는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음성공양 △인사말 △내빈소개 △연혁보고△축사 △역대회장 소개 △공로상 및 감사패 전달 △다법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수월관음삼존도, 신중탱화 및 산신각 점안식' 을 10월10일 정법사 4층 원통보전에서 봉행했다.

◀정법사에 안치된 '수월관음삼존도' 모습.

이날 공로상은 전정현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수상했으며 감사패는 영축다도회 역대회장인 이금선 외 5명이 받았다.

영축다도회 20주년 기념행사는 운수 선차 시연 및 차와 물을 주제로 이병인 부산대 교수의 강의, 밀양지역 도자기 10인 특별 작품전 및 접빈 찻자리 등 다채로운 행사로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영축다도회는 2001년에 1기를 모집해 현재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기초 3년 과정 수료생은 234명, 사범교육 2년 과정을 거쳐 5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132명이다. 5년 이상 연구반에 등록된 인원은 78명으로 다도 전문인 양성 및 전통문화 전수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 바라밀선원, 증축불사

10월 10일 기공법회 봉행

선방 · 명상실 조성 추진

김해 바라밀선원이 증축불사 시작을 알리는 법회를 봉행하고 발전 및 도약을 기원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10월 10일 경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증축기공법회' 를 봉행했다.

증축기공법회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법문으로 정진과 화합을 당부했으며 이웃을생각하는모임 회장 혜진 스님을 비롯해 김해 및 부산에서 방문한 스님 · 재가불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바라밀선원은 김해를 대표하는 전법도량으로 8년 전 신도시 내 작은 상가에서 문을 열었다. 주지 인해 스님은 도량 이전을 위해 1000일 기도를 입재하며 사찰의 발전 뿐 아니라 김해 가야문화 재고찰 및 연구로 불교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를 위해 김해 지역 스님들과 합심해 옛 가야국의 의미를 강조하고 가야 불교 문화의 성지로 이끄는 선봉장으로도 활동했다.

바라밀선원은 갤러리 및 법당, 카페가 있는 현대식 신축법당으로 3년 전 이전 개소했다. 바라밀선원은 증축기공 법회를 통해 '선원' 으로 도약 발전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바라밀선원은 1층 법당 및 공양실, 2층은 북카페 및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증축불사를 통해 3층은 법당, 4층에 선방 및 명상실, 관음전이 위치한다. 5층은 지대방 및 다용도실이다. 완공 후 도량 연면적은 1650㎡(500평)이며 2021년 4월 준공이 목표이다. 현재 2층으로 건축된 바라밀선원을 5층으로 증축, 선방 및 명상실을 더한다.

인해 스님은 "바라밀선원은 이름 그대로 선원이다. 선원을 늘려 마음공부의 핵심 도량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례 화엄사 조실에 명선 스님 추대

10월 9일 문장 · 회주 추대도

"교구 내 대중의 화합" 강조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실에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이 추대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10월 9일 경내 각 황전에서 봉행한 도강 · 도천대종사 합동추모제〈사진〉에서 화엄사 조실에 금성당 명선 스님, 문장에 은산당 종국 스님, 회주 송천당 종열 스님을 추대했다.

조실에 추대된 명선 스님은 "미력하나마 대중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스님은 "화합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마침내 성불에 이를 수도 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화합을 통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답을 얻을 수 있다"며 교구내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구례지역 수해를 언급하며 "이번에 구례지역 수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대중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구례군민과 먼 곳에서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참여해 주신 종단의 스님들과 신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강 · 도천대종사 합동추모제는 오전 10시 30분 화엄사 선다회의 차 공양을 시작으로 죽비삼배, 도광도천대종사 육성 녹음, 행장소개, 헌다, 반야심경 봉독, 헌화에 이어 조실추대, 부도 참배로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에는 명선 스님, 종국 스님, 종열 스님을 비롯해 주지 덕문 스님 등 교구문도 100명이 참여해 두 큰스승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한편 명선 스님은 1952년 전남 담양 보광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여수 흥국사 주지, 여수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명대사 호국 · 애민 정신 계승한다

부산불교聯, 10월 12일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

호국영웅 사명대사의 열반 410주기를 맞아 부산불교가 사명대사의 열반을 추모하며 코로나 극복과 국운융창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0월 12일 부산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 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과 수석부회장 세운 스님,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발원문과 봉행사 및 대재사, 추모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장 경선 스님은 대재사를 통해 부산에서 활동한 사명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호국의 의미를 강조했다. 부산은 사명대사가 왜군을 맞서 전투를 한 곳이며 아울러 돌아온 포로를 다시 맞은 관문이라 호국 정신과 의미가 남다른 지역이란 설명이다.

경선 스님은 "부산은 많은 왜적의 침입을 맞서 받아냈던 전쟁터였고 전쟁 후에는 볼모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온 관문이었다"며 "사명대사는 전쟁 중에도, 후에도 부산을 중심으로 호국애민정신을 실천했다. 오늘 부산불교연합회에서 봉행하는 추모재는 사명대사와 승병들의 호국 정신을 오롯이 드러내는 뜻 깊은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현재 전 세계 재난에 맞서 생명과 이웃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있다. 민초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명대사의 대의처럼 자비심으로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12일 부산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410주기 추모대재' 를 봉행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4일 오후2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0 부산 팔관회' 를 봉행한다. 매년 3일에 걸쳐 개최되어 왔지만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행사를 하루로 축소해 진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불 논단

한국정치와 口業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모든 구업 형태 있는 韓정치판
현장서 망어 · 양설 · 악구 난무

관용없고 미움 가득한 정치용어
개인적 차원 넘어 공업으로 확대
이념 · 계층 · 지역 등 갈등 심화

구업 극복하는 방법 '愛語' 사용
구성원들 '연기적 시민의식' 필요
품격은 언어서 나옴을 명심하라

언어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은 그의 '그림이론'에서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주장한다. 즉, 언어와 세계는 동일한 대응 관계를 갖는 것으로 언어의 구조가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나타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론을 한국의 정치판에 대입해 보면 한국 정치의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래에 한국 정치의 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언어의 게임을 보면 이 구업을 어찌 담당할까 하는 근심이 생긴다.

불교의 업(業) 이론에 '삼업'이 있다. 즉 몸으로 행하는 신업(身業), 말로 행하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행하는 의업(意業)이다. 한국 정치판은 구업의 모든 형태가 나타난다.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기어(綺語) 등이 한국 정치 언어 현장의 큰 흐름이다. 말의 칼날이 날카롭고 여백이 없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구업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업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공업은 집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이다. 이것은 한국정치사회 구조의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갈등과 균열의 도가니 속에 있다. 이념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 모든 영역에 갈등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중에서 이념적 갈등이 모든 갈등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정치 집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도식화되고 이분법적인 정치 용어가 난무한다. 이러한 용어에는 타자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없고, 계산과 미움이 가득하다. 이를 어쩌라. 우리가 받을 공업의 결과가 무섭다.

불교의 업 이론의 핵심은 업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선한 업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악한 구업을 극복하는 방법은 애어(愛語)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자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치 집단에 생명줄을 대고 있는 정치인에게 이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적 이해집단의 뜻을 어기고 용기를 부린 정치인이 겪는 고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연기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각자는 독립적이고 원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호혜적이며 네트워크화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기적 시민의식은 큰 바다가 되어 미움과 혐오로 가득 찬 정치인의 언어들을 거품으로 삼켜버릴 것이다.

현대사회는 통신 과학의 발달로 인해 점점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를 강요받고 있다. 비대면 관계에서는 도덕적 나태와 도덕적 무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사회는 익명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사회에서는 그만큼 도덕적 각성과 긴장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댓글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자의 '품(品)'은 '입구(口)' 세자가 합성된 용어다. 사람의 품격은 바로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필자는 삼업 가운데 구업이 제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선한 구업을 실천할 수 있다. 지난 한글날에 어느 정당의 대변인은 "바른 말, 고운 말로 정치의 품격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아득하게 느껴진다.

사족 하나를 붙이고 글을 마친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좌기예(挫基銳)의 지혜, 즉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는 지혜를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불교 홍포 '설법 원력' 세우자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부처님께서 중생을 근기에 따라 설법한 일승(一乘)의 대승방편 법문을 널리 홍포하기 위해 사자후를 한 경전이란 뜻인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의 원래 이름을 줄인 대승경전이다.

〈승만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법수지 전법원경'이다. 승만부인은 아유타국의 우칭(友稱) 왕에게 시집을 갔다. 부모님(사위국의 파사익왕과 말리왕비)은 시집간 딸을 생각하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편지를 보낸다.

승만부인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 "모든 사람은 남녀, 신분의 차별이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인 '여래장(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설법을 듣고, 또 미래세에 '보광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승만부인은 부처님 앞에서 십대원(十大受)와 삼대원(三大願)을 세우고,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원(正法攝受願)과 함께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널리 홍포하겠다는 서원(說法願)을 다음과 같이 세운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어받아 올바른 정법을 널리 펼 것을 서원하나이다. 보살이 세운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원은 모두 이 하나의 큰 원 속에 포함됩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큰 원입니다."

〈승만경〉은 재가신도 여성이 경전의 설주(說主)가 되어 부처님을 대신하여 외도를 절복시키고 정법을 홍포하겠다고 적극적인 파사현정의 사자후 설법을 하는 유일한 경전이다. 깨달음에는 승속의 차별이 없고, 불법을 홍포하고 수호하는 주체가 결국 재가불자임을 밝힌 것이다.

한국불교 교단의 주체는 여성불자이다. 설법을 하는 사람은 주로 법사이지만 설법을 듣는 대상은 대부분 여성불자이다. 사찰의 불사를 하는데도 재정적인 보시금을 여성불자가 담당하고 있다. 법사는 여성불교학에 관심을 갖고 여성을 상대로 설법하는 주제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남녀평등 사회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동일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다. 유럽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세상을 이끌고 있다. 우리 불교교단에서도 시줏돈만 내는 보살이 아니라 교단의 경영에도 참여하고, 나아가 부처님의 정법을 설법할 수 있는 수많은 여성 법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이웃종교에서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한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부처를 팔아서 삶을 이어가는 '가사 입은 도둑'이 있다. 그는 입은 있어도 설법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승려(啞羊僧)'이다"라고 했다. 모든 불자는 설법원(說法願)을 세워서 경전의 사구게 한 구절이라도 이웃을 위하여 설명하는 위타인설(爲他人說)의 설법원을 세워야 한다.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설법으로서만 가능하다. 무지와 몽매함을 일깨우는 길은 교육뿐이다. 한국 종교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침묵이 미덕이 될 수는 없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변화된 산사 축제 새로운 기회

코로나19 사태는 매년 가을산사를 장엄했던 법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불교계는 지역적 특성과 사찰의 역사를 반영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특히 가을에 개최되는 행사가 많다. 단풍과 꽃무릇 등 가을의 정취와 어우러진 경관 덕도 있지만, 조계종 교구본사 등 주요 사찰의 개산대제 등 의미 있는 법석이 이 시기 집중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년과는 다른 형태의 신풍경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감염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을 취소한 사찰들이 아쉬움을 전하는 가운데,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새롭게 시도하는 사찰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중 월정사는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 자체를 단순히 영상으로 송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도량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해 온라인 참가자와 현장 참가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장에서 함께 만나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행사는 축소됐지만, 대신 환경과 인류의 미래, 명상과 평화 등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아젠다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는 위기다. 사찰과 불교계가 그동안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혹은 미뤄뒀던 여러 사안들이 급작스럽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에 바꿔 생각하면 기회일 수 있다. 변화에 발맞춰 한걸음 내딛을 때 미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각 사찰들이 여건에 맞는 선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0 · 27법난 40년, 대국민 추념 필요

40년 전인 1980년 10월 27일,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은 불교 정화란 미명 아래 스님 153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이어 3일 뒤인 10월 30일에는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병력 3만 여명을 투입해 전국 사찰 5000여 곳을 일제히 수색했다.

억불숭유시대인 조선조 때에도 없었던 이러한 법난이 발생한지 40년이 지난 2020년, 불교계가 10 · 27법난 당시 아픔을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천도재와 기념식은 물론이고 전시회와 유튜브 영상물, 신도교육 등 문화적인 방법으로 법난의 사실을 알리고 기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10 · 27법난으로 인해 떨어졌던 불교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다. 신군부의 수뇌였던 전두환 씨의 참회와 함께 불교계 내부의 부역자들을 밝혀내는 것과 그리고 이를 조장한 책임자들이 죄과를 치루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10 · 27법난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로 인한 명예 회복에 공감하는 것이다.

10 · 27법난은 유튜브 생중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018년 혜성 스님의 입적 등 당시 피해자 스님들의 세납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민참여가 필요하듯 10 · 27법난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참여가 절실하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5 · 18민주화 운동의 경우 영화 제작 등은 물론이며 특별공모전과 함께 온라인 서포터즈 발족, 뮤직비디오 제작 등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다. 40주년을 계기로 특별 공모전과 함께 다양한 대국민 추념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4~10/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2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도암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5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낡은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6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7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8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9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10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책세상

'방거사어록' 全 3권 완역



방거사어록 · 시역주
강승욱 역주 / 운주사 펴냄
2만7천원



저자 강승욱.

어록 · 시게 · 찬문 전권 번역
〈만신속장경〉 제 69책 저본
꼼꼼한 번역, 방대한 주(註)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국의 유마거사로 불리는 방거사의 어록과 게송을 모아 엮은 〈방거사어록〉의 번역본이 출간됐다.

방온(龐蘊)이 본명인 방거사는 중국 당나라 때 사람으로 불교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선사들과의 법거량에서 출 · 재가의 경계를 무색케 하는 탁월함을 보여준 그는 선불교는 물론 불교사 전체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인물이다.

〈방거사어록〉은 〈속장경〉에 상 · 중 · 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상권은 어록으로 되어있고, 중 · 하 두 권은 시게(詩偈)와 찬문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상권(어록)만 소개되어 중 · 하권의 시게와 찬문의 번역은 볼 수 없었다. 이번 역주서는 어록과 시게, 찬문 모두를 번역한 것으로, 방거사의 진면목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책은 2014년 중화전자불전협회에서 전산화한 〈만신속장경〉 제69책 〈방거사어록〉을 저본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판본 중에는 명나라 숭정 10년(1637)에 간행된 것(이하 숭정본)이 가장 오래 되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각 문장마다 숭정본과 대조하여 주(註)를 달았다. 또한 어록 그 자체로는 숭정본이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일지라도 어록에 담겨 있는 각각의 개별 내용들은 이보다 역사적으로 앞선 전적(典籍)들에 다수 산재되어 있어 각 단락 끝에 하나하나 대조하여 주를 달았다. 숭정본보다 앞선 전적들로 대조한 것은 〈경덕전등록〉(이하 전등록) · 〈조당집〉 · 〈선문염송집〉이다. 또한 이번 책은 이리야 요시타카의 〈방거사어록(양기봉 역, 1995, 김영사)〉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저본에는 없는 것들(상권의 어록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했다(상권 말미에 보유라는 이름으로 수록했다). 그리고 부록으로 저본에는 없는 무명자(無名子)의 〈방거사 어록 · 시 · 송 · 서문〉과 〈조당집〉과 〈전등록〉에서 전하는 거사의 이야기 전부를 번역해 수록했다.

이번 어록(방거사 어록 · 시의 통칭)에는 여타의 선어록들과는 다른 것들이 있다. 특히 거사는 승려가 아니기 때문에 선사들의 어록에 있는 상당법어와 대중법문이 없다. 상당법어와 대중법문이 없기 때문에 거사의 핵심 사상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책은 거사의 시(게송)를 많이 전하고 있다.

또한 거사는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학하던 학인들(제자)과의 기연어구(機緣語句)가 없다. 석두 · 마조와의 만남을 제외한 어록의 대부분이 당대의 이름난 선사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여타의 어록들은 주(註)와 빈(賓)이 분명하다. 또한 선사들의 감변(勘辨)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인가 받거나, 가일층 정진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하지만 이번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주와 빈이 호환하며 서로 법담을 즐길 뿐이다.

역자는 앞서 출간한 〈원오심요 역주〉와 〈마조어록 역주〉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책 역시 번역은 하되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이유는 어록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해석을 문자화한다는 것은 어록 전체를 사구(死句)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역자는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또 다시 글로 전한다는 것은 한정에 한정을 더할 뿐이다. 그래서 거사는 물론 역대의 선사들 모두가 어록을 부처의 열반 이후 부처를 보고 싶은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에 의해 불상이 만들어졌듯이 선사들의 제자가 스승에 대한 사모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간의 기억과 외움을 간결과 절제의 방법으로 문자라는 형식을 빌려 세상에 나온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한다.

선가의 대화에는 일체의 머뭇거림이 없다. 전광석화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과 할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록은 바로 그대로 단숨에 읽어 내려가야 한다. 역자는 "설령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모르는 대로 읽어야 한다. 단숨에 읽어 내려가면서 알면 아는 대로 "아!"하면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읽고,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하며 참구하면 된다. 그래야 진정한 공부가 될 것이다. 이번 책이 머뭇거림 없이 바로 읽어 내려감에 단도직입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원문은 원래대로 역자가 인용부호를 붙였고, 번역은 가능한 한 바로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문 단어의 뜻과 여러 가지 관련된 주(註)를 상세히 달았다. 역자는 거사 자신이 전하고픈 생각과 견해, 사상 전반을 시게를 통해 알리고자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게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위해 다소 기초적인 것이라도 불교사전의 힘을 빌려 번역해 수록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게송)의 제목(어록 편에 실려 있는 것)은 알려진 그대로를 따랐으며,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새 옷을 입고 세상에 선보이는 것(중 · 하권의 시 149수 가운데 다수)들은 역자가 임의로 첫 구나 혹은 중요 구를 가지고 임의로 정했다. 이번 책은 가능한 한 중화전자불전의 편집을 그대로 따랐으며 원문의 문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 주요 한자 및 단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의 이해를 돕는 방대한 주(註)에 그 특징이 있다. 특히 각종 경전과 선어록을 토대로 한 상세한 주석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거사는 그 유명세와는 달리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다. 형주 사람이라는 것, 말년에 양양에서 살았다는 것, 아들과 딸이 있었다는 것, 마조를 만났다는 것 등 그나마 전해지는 그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추론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거사는 누구인가' 편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 강승욱은 남산 정일(南山 正日) 선사를 은사로 불법에 귀의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인도철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교관, 5사단 군종참모를 역임하였고, 육군대학,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불법을 홍포했다. 2010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역 후, 지인들과 경전 및 선어록 강독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에 원오선사의 〈격절록(擊節錄)〉을 연재(2019년)했으며, 펴낸 책으로 〈원오심요 역주〉, 〈마조어록 역주〉가 있다.

지구 생태위기, 불교는 어떤 답을 줄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것
데이비드 로이 지음 / 민정희 옮김 / 불광 펴냄 / 1만 9천원

종교와 과학이 때로는 갈등하고 화합하며 오늘의 인류 문명을 있게 했다면, 위기의 시대에 불교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책은 현대 문명의 가치와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대적 부름에, 불교철학자 데이비드 로이 박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불교 행동철학을 다룬다.

'에코다르마(Ecodharma)'로 명명된, '생태불교'의 핵심은 바로 '궁극의 깨달음은 사회적 실천에 있다'라는 데 있다. 우리에게 당면한 생태 · 사회적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는 이 책은,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하는 명저이다.

선 수행자이자 사회적 참여불교 활동가로 서구에 잘 알려진 데이비드 로이는 '연기법(緣起法)'과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 즉 깨달음을 "우리가 다른 이들이나 지구와 분리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서 사회구조적인 고통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내면(명상) · 외형(행동주의) 수행 실천하는 21세기 생태보살(eco-bodhisattva)도 소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회적 · 집단적 원인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개인의 변화라는 길과 사회의 변화라는 길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각성이 꽃을 피우는 방법이고, 명상과 같은 사색적 수행은 우리 행위의 바탕이 되어 그것을 영적인 길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바로 에코다르마이다. 이는 불교 전통이 최근 전개하는 새로운 용어로, 생태적인 관심(eco)에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연관된 영적 전통(dharma)을 결합한 것이다.

에코다르마는 우리가 생태위기를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의 측면들을 탐색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수행하는 방식에서 에코다르마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이 책은 자연에서 수행하고, 불교적 가르침의 생태적인 시사점을 탐구하며, 오늘날 요구되는 생태적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회참여는 개인의 정신적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불교인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사회적 행동에 전념해온 사람들은 피로와 분노와 우울 그리고 에너지 소진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면(명상)과 외형(행동주의)의 두 가지 수행이 조화롭게,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두 가지 수행의 결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실천, 참여하게 한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또한 명상하는 이들이 자신의 심리상태에 사로잡히는 덫을 피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세상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태보살(eco-bodhisattva)에 의해 길러진 통찰력과 고요함은 불교행동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지탱해주는데, 그것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절망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태도)보통 무책임한 태도 혹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도이다. 결과가 행위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김주일 기자

10·27 법난 40주년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

그 엄혹했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

여보! 선상님! 아프고 한없이 아파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참다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의 소리를 질러본다.
그럴수록 가해오는 채찍은
더더욱 더해온다.
나를 마치 돌덩이 쇳덩이로 알고
치고 또 족친다.

-혜성 스님의 법난 시 〈아파 죽겠어요〉 중에서



혜성慧惺 스님 지음 / 212페이지 / 10,000원

동쪽나라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찰에서 평생의 인연 만나요

日혼간지, 결혼중개서비스 제공 '화제'

사찰 매개 결혼 '테라콘'
"신도 위한 역할 수행"
대중 친밀감 확대 도움

김민재 객원기자

일본 도쿄의 중심에 있는 고찰 츠키지 혼간지(築地本願寺). 일본 최대의 종파인 정토진종의 도쿄분원으로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또 근대에 아잔타-엘로라 석굴을 모방한 중창불사로 이루어진 독특한 외관 덕에 관광지로도 이름이 높다.

오랜 역사와 함께 도쿄의 관혼상제를 맡아온 이 사찰이 최근 결혼중개서비스를 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츠키지 혼간지의 결혼중개서비스 '츠키지의 테라콘' 을 특별 보도했다.

'테라콘' 이란 사찰을 뜻하는 일본어 단어 '테라(寺)' 와 혼인의 '콘(婚)' 을 합친 신조어로, 사찰을 매개체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 정식 결혼중개업체로 출범한 '츠키지의 테라콘' 은 현재 성혼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지만,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테라콘을 이끌고 있는 도쿄 야스코 스님은 "중세시대엔 동네 사찰이 미혼자를 위한 중매쟁이의 역할을 했다는 기록과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하고 있다"며 "츠키지 혼간지는 잊혀졌던 그 역할을 되살려 오늘날 젊은이들과 다양한 연령,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사찰에 대한 친밀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츠키지 혼간지 측도 "그동안 혼간지를 통해 성혼이 이루어진 불자 부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통 사찰 신도의 개인적인 요청을 받으면 역시 신도 중에서 다른 중개업체의 회원을 이어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사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섬으로써 행복한 결혼과 불자 부부 모임으로 이어기질 바라면서 정식으로 중개서비스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또한 혼간지 측은 "이를 선례로 삼아 다른 사찰이나 종단들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테라콘의 실무를 맡고 있는 결혼 상담가 와타노부 레이코는 "혼간지에서 테라콘을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다. 아마도 사람들은 사원에서 직접 중매를 나섰기 때문에 편히 마음을 여는 것 같다. 주말에도 회원 인터뷰와 부부 회담을 위한 예약으로 바쁘다"고 말했다. 현재 테라콘 가입희망자들은 혼간지에서 스님이나 결혼상담가와 면접을 보고, 결혼중개대행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사찰의 직원들은 회원들의 프로필을 만들고 요구사항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결혼을 돕고 있다.



츠키지테라콘 중매서비스 광고. 사진출처=츠키지혼간지 홈페이지

지난 9월 테라콘에 가입한 40대의 남성은 "기존 중개업체에 등록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고 현재 수요가 많은 중개앱의 기계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꺼려졌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알려진 유명 사찰에서 중개 서비스를 시작해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츠키지 혼간지는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사찰' 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비가 없는 묘지, 경찰서 내에 카페와 레스토랑 등 상업시설도 유치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환경 · 생명 위해 동물 착취 멈춰야"

달라이라마, 채식식단 권장
세계 동물의 날 메시지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채식식단을 권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0월 7일 국제불교 전문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와 '더 비트' '파율' 등 외신들은 달라이 라마의 세계 동물의 날 메시지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북부 다람살라의 관저에서 비대면 생중계로 발표된 메시지에서 "여러 선진 국가에서 단지 고기를 소비하기 위한 대형 축산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해하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채식식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스포츠, 유희, 도전과 같은 목적을 내걸거나 가죽과 모피를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역겹고 고통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잔혹행위를 탐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살생의 기조를 전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동물 착취를 지양하며 동물에게 보다 덜 의존하는 온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동물의 날 기념 연설 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닷컴

달라이 라마는 인도처럼 채식문화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과 문화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몽골 일부 지역과 추운 기후 지역에서는 수세기 동안 동물에 의존해 생계를 꾸렸기에 하루아침에 채식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작은 노력의 일환으로, 티베트 불교의 사찰과 티베트인 학교의 식단에서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 식단을 늘릴 것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육류보다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래전부터 채식을 권장해 왔으며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육류소비를 제안해 왔다. 달라이 라마 스스로도 인도망명 직후 채식을 시도했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최소한의 육식 식단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티베트인들 역시 그 뜻에 동참하여 채식주의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가 태어난 수요일에 맞춰 매주 수요일엔 육식과 동물성 제품의 사용을 피하는 풍습이 생기고 있다.

한편 세계 동물의 날은 1925년 독일작가 하인리히 짐머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베를린에서 제1회 세계 동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0월 4일마다 열리며 전 세계 동물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영국에 본부를 둔 동물복지 단체인 네이처워치 재단이 주도하고 후원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세계적 스승 틱낫한, 94번째 생일 맞아

플럼빌리지, 메시지 발표
건강 우려에 "건강하다"


틱낫한 스님의 94세 생일을 맞아 플럼빌리지가 공개한 사진.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세계적 명상 스승이자 평화 운동가인 틱낫한(Thich Nhat Hanh) 스님이 10월 11일 94번째 생일을 맞았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의 10월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이 만든 수행 공동체인 플럼빌리지(Plum Village)는 이날 전 세계 신도들에게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플럼빌리지는 "작년 이맘때 틱낫한 스님의 수도승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에게 생일을 기념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평생을 수행하며 살아온 스님은 '너희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플럼빌리지는 "스님은 우리에게서 달마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고통을 평화와 즐거움, 행복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듣는 게 선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민과 관용을 가질 것을 장려한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승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2014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집중 치료를 받은 후 2016년 12월 말께부터 호전됐다. 2018년부터는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뚜 히에우(Tu Hieu) 사찰에서 주석 중이다.

최근 틱낫한 스님의 건강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플럼빌리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낫한 스님은 건강하다"고 발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순례단 태운 버스, 열차사고 참사

20명 사망 · 45명 부상

태국에서 불교 순례자들이 탑승한 버스가 화물 열차와 충돌,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만 해당 버스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게 주된 사고 원인으로 밝혀져 비판의 시각도 있다.

10월 13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중부 차청사오주(州)에서 관광 버스가 화물 열차와 충돌해 버스 탑승객 중 20명이 사망하고 45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버스에는 사뭇쁘라깐주(州)에 위치한 한 공장의 근로자 64명이 탔으며, 이들은 차청사오주의 한 사찰에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사고는 버스가 열차 선로를 건너려고 시도하던 중 발생했다. 건널목에는 경고등과 신호등은 있었지만 차량 차단기는 없었다는 후문이다. 사망자들의 유가족들은 태국국영철도(SRT) 측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청사오 주지사는 "과속방지턱과 장벽을 설치하고, 가시성 향상을 위해 교차로 근처에 나무를 베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쁘라윳 짠 오차 태국 총리도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총리 측은 "사망자와 유가족,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 정부에 명했다"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전담 조사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버스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당시 기관사가 사고 지점 약 300m 전부터 경적을 울리고 경고등도 작동시켰으나, 버스 기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승객들은 춤을 추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스의 최대 탑승 인원은 42명이었는데 실제로 65명이 탑승, 적정 중량 초과로 버스가 건널목을 제때 건너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당국은 열차 기관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현재 태국 내 설치된 철도 건널목 2657개 중 676곳은 불법이라고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 안전 장치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2014~2019년 간 태국에서 발생한 철도 건널목 관련 사고는 486건으로, 이중 143건은 불법 건널목에서 발생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이 설하신 '부모님 은혜'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⑳ 부모은중경변상도



북송 시대에 제작된 '불설보부모은중경변상'으로 감숙성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경전에 있는 10가지 은혜를 도상화한 '십은변상'에 앞선 초기 '부모은중변상'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용연사 소장 '대보부모은중경변상판화'으로 고려시대에 제작됐다. 〈부모은중경〉 중 '제6 유포양육은'의 내용을 도상화했다.

초기불교부터 '孝' 덕목 명시돼
불교 대표 '孝經' 〈부모은중경〉
10가지 부모 은혜 설하고 있어

돈황 막고굴에 관련 벽화 확인
부처님 설법 아래에 경전 도해
'십은변상' 변화… 韓에도 정착

백중기도와 추석 차례를 지내면서 "불교에서는 '효'를 언제부터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가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불 사건 등 일련의 탄압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효를 불교에 접목시켰을까? 사실 여러 종교들 중에서 불교만큼 조상에 대한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도 없을 것이다.

불교와 효의 관계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미 초기 불교시대부터 여러 경전들에서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나 윤리개념이 적혀있다. 먼저 가장 이른 사례로 팔리어 장경의 〈맛지마 니까야〉의 한역본에 해당하는 〈중아함경(中阿含經)〉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에서는 굶주린 부모를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부모님께 봉양한 수사제(須闍提) 태자의 이야기를 첫 장에 싣고 있다. 이 외에도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 〈불설부모은난보경(佛說父母恩難報經)〉 등 수 많은 경전들에서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기 이전부터 인간의 윤리와 효에 관해서 중요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효를 설한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집약되고 발전된 경전을 꼽는다면 불교 경전 속의 '효경(孝經)'이라 칭해지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일 것이다. 이 경전은 〈은중경(恩重經)〉 〈불설부모은중경(佛說父母恩重經)〉 〈불설보부모은중경(佛說報父母恩重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일반적으로 〈부모은중경〉은 쿠마라지바(鳩摩羅什)가 한역하였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당나라(唐代) 때 찬술되어 전래된 불경으로 '위경(僞經)'이다. 〈부모은중경〉 경전이 성립된 초기부터 서로 다른 이본(異本)들이 존재하는데, 대략 다섯 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전 성립의 초기에는 부분 개정과 일부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정도의 변화만을 보이다가 점차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경전의 명칭도 내용 변화에 맞추어 〈부모은중경〉에서 〈불설부모은중경〉으로 다시 보은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으로 바뀌었다.

〈부모은중경〉의 대략적인 내용은 부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여 열 달 동안 겪는 10가지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자식에게 베푸는 열 가지의 은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 이야기이다. 특히 열 가지 은혜는 변상판화의 삽화로 가장 많이 제작됐다. 그 내용은 △아기를 배고 지켜준 은혜 △해산할 때의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여주신 은혜 △마른자리 골라 아기 눕히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더러운 것을 깨끗이 빨아주신 은혜 △멀리 떠난 자식을 걱정해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하신 은혜 △끝까지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시는 은혜이다. 그리고 경전의 후반부에는 한량없는 은혜를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한 '부모은중경변상'의 변화와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부모은중경변상'은 현존 가장 이른 사례가 중당(中唐, 781~848) 시기에 조영된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238굴에 그려져 있으며, 이후 중당부터 오대북송(中唐~五代宋代)까지 막고굴 156굴 · 170굴 · 449굴에 벽화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돈황 막고굴 17굴에서 출토된 비단에 그려진 2점의 작품까지 돈황 지역에서 모두 6점의 '부모은중경변상'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돈황 출토의 작품들은 모두 일반적인 설법도의 화면구성에 화면의 좌우와 하단에 경전의 내용 일부를 도해하였다. 또한 11세기경 제작된 서하(西夏)의 하라호토에서 출토된 '불설부모은중경판화(TK119)' 역시 중앙의 부처님을 중심으로 은혜와 보은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12~13세기 사천성(四川省) 보정산(寶頂山) 대족석굴(大足石窟)의 '부모은중경변상'은 경전의 내용이 화면의 중심에 도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을 거쳐 정형화된 '부모은중경변상'의 도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족석굴에서 등장한 열 가지 은혜를 표현한 '십은변상(十恩變相)'은 고려와 조선 '부모은중경변상'의 '십은변상'과 그 명칭 및 도상표현에 있어 매우 유사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더하여 대족석굴에서부터 함께 표현되는 지옥 장면이 이후 간행되는 '부모은중경변상'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려와 조선 '부모은중경변상'의 기원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에 〈부모은중경〉이 유입된 시기는 통일 신라시기로 추정하지만,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부모은중경〉은 고려 고종 37년(1250)의 〈부모은중경〉이다. 이후 판본으로 충렬왕 26년(1300)에 간행된 〈불설부모은중경〉과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3종의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등 고려 시대에는 〈부모은중경〉과 관련된 총 4종의 목판본이 있다.

고려의 〈부모은중경〉 중에서 관련 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사례가 1378년(고려 禑王 4년)에 제작된 용연사 소장본이다. 처음 제작 시에는 '십은변상'이 각 장마다 총 열 장면으로 분리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제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제7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제8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제9 심가체휼은(深加體恤恩)' '제10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의 다섯 장면만이 전해진다.

위의 다섯 장면 중에서 '제6 유포양육은'을 살펴보면 세로 21.8㎝, 가로 10.0㎝의 직사각형 화면의 윗부분에는 집안의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으며,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경전의 내용이 6행이 세로 방향으로 적혀있다. 경전은 해당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섯째 젖 먹여 양육하신 은혜. 어머님 크신 은혜 땅에다 견줄까, 아버님 높은 은덕 하늘에 비길까, 높고 큰 부모의 은공 천지와 같으니, 부모의 은혜 역시 그러하다, 눈 못쓴다고 싫어하지 않고, 손발 걸린다고 미워하지 않고, 배 갈라 낳은 친자식, 종일 아껴 더욱 어여삐 여기신다.(第六哺乳養育恩 頌曰 慈母垂於地 嚴父配於天, 覆載恩同等, 父娘恩亦然, 不憎無怒目, 不嫌手足攣, 誕腹親生子, 終日惜兼憐)"

〈부모은중경〉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되었고, 나라마다 많은 유통본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필사본으로 유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 이후부터 공덕을 위해 목판본이 많이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전래된 이후 11세기 초에는 판본을 제작할 정도로 이미 국내에 널리 대중화되어 유통되었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삽화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언해본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부모은중경〉은 수십 종의 판본이 전해진다. 이를 단순히 효도가 강조된 조선시대에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이미 불교성립의 초기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윤리와 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을 발휘한 결과로 보는 것이 어떨까.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신뢰가 정답인 사회 '불국정토'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⑳ 정치의 선악과 과보



그림 · 박구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학상 불후의 명저로 간주된다. 마키아벨리는 작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이태리 통일의 염원을 달성할 이상적인 군주로 체사레 보르지아를 염두에 두고 '군주론'을 집필했다고 한다. 군주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해야 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격렬한 민심 이반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신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처형함으로써 신뢰를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아버지였던 교황의 후광으로 추기경에 이어 군주의 지위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이태리 통일은 체사레 보르지아 같은 냉혹하고 교활한 군주가 아닌 이태리 통일의 3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상주의자이며 애국자이고 난세의 영웅이었으며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작은 국가들이 강대국에 의해 병합되는 전쟁의 시대였다. 부처님은 석가족 카필라국 출신인데 카필라국은 작은 나라로서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면 큰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부처님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꿰뚫어보시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법계의 왕이 되신것일까? 결국 카필라 왕국은 코살라국에 의해 멸망한다.

당시에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은 양대 강국이었다. 코살라국의 프라세나짓 왕과 마가다국의 빔비사라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했고 불교에 귀의하였으며 상가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인연으로 두 왕은 서로 사이가 좋았다. 두 왕의 시절에는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아자타사투르가 아버지인 빔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자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깨진다. 아자타사투르는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다와 더불어 부처님을 괴롭힌 왕이기도 하다.

아자타사투르 왕이 프라세나짓 왕을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프라세나짓 왕에게 잡힌다. 〈잡아함경〉을 보면 프라세나짓 왕은 아자타사투르를 데리고 부처님 앞으로 간다. 프라세나짓 왕은 아자타사투르가 자신의 친구인 빔비사라 왕의 아들인데 자신에게 원한을 맺어 못된 짓을 하였으나 풀어주어 마가다 국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프라세나짓 왕을 칭찬한다.

프라세나짓 왕에 의해 풀려난 아자타사투르 왕은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이번에는 프라세나짓 왕이 패하여 겨우 수레 한대를 타고 되돌아온다. 이 전쟁의 여파로 코살라국은 궤멸하고 나중에 마가다국에 의해 병합된다. 한번 전쟁에 패했어도 굴하지 않고 다시 만회의 기회를 엿본 아자타사투르 왕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한 왕이다. 만약 프라세나짓 왕이 아자타사투르 왕을 풀어주지 않고 여세를 몰아 마가다 국을 완전히 정벌하였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비록 프라세나짓 왕이 자비의 마음으로 아자타사투르 왕을 풀어준 것은 부처님의 칭찬을 받은 선한 행위지만 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는 패배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했지만 실패했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용맹하였고 성공했다. 정치의 세계에서 권모술수만이 성공의 요인은 아니다. 다른 수많은 인과 연이 필요하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다른 인과 연에 의해서 권모술수가 성공으로 이어졌고 체사레 보르지아는 다른 인과 연에 의해서 권모술수도 별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정치인은 항상 고민할 것이다. 권모술수로 정치를 할까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모술수 못지 않게 신뢰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여우처럼 교활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 군주는 더 이상 여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마키아벨리는 권모술수와 신뢰를 동시에 강조했으니 이 모순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

오늘날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세계의 최상위권이다. 과거 농경시대에 알프스 산맥에 자리잡은 스위스는 가난한 나라였다. 가난하다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 용병으로 해외에 나가 돈을 벌어 고국으로 보냈다. 그렇게 보내온 돈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업이 발달했다. 스위스 용병은 아주 유명하다보니 대를 이어 용병을 할 수 있었다.

선악 행함으로 쌓이는 공업
업으로 현실 과보 돌아와
좋은 말과 행동이 현실에서
이익으로 실제 다가옴 알려

할아버지가 용병을 하고 아버지가 용병을 하고 그 자식이 용병을 했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왕궁을 지키던 군인은 프랑스 군인이 아닌 스위스 용병이었다. 파리 시민의 공격으로 루이 16세는 패배를 예견하자 자신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에게 승산이 없으니 도망가도 좋다고 허락한다. 하지만 그때 스위스 용병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 도망갈 것인가 최후의 1인까지 남아서 싸우다 죽을 것인가?

회의의 결과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한다. 루이 16세와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가면 자신들은 살겠지만 스위스 용병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자기 자식들은 용병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회의의 분위기를 지배한다. 결론은 끝까지 싸우다 죽자였다. 스위스 용병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하고 이를 애도하는 조각상이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다. 사자는 죽어가는 스위스 용병을 상징한다.

프랑스 혁명으로 유럽의 여러 왕들은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 왕정이 무너질까 걱정한다. 이에 프랑스를 침공하였지만 나폴레옹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세를 몰아 황제의 위치에 오른다.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로부터 왕위를 빼앗아 나폴레옹에게 바친 격이 된다. 베토벤은 유럽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으로 나폴레옹을 존경하는 마음에 교황곡 3번을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다.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민중을 배반한 나폴레옹에 실망하여 교황곡 3번의 악보를 찢어버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교향곡 3번이 '영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이러한 일화 때문이다.

스위스 용병은 신뢰를 잃지 않았기에 나폴레옹 때에도 원래의 계약에 의해 용병이 된다. 스위스 용병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같이 진군한다. 프랑스군이 패배해도 전장을 이탈하지 않고 나폴레옹이 철군한 뒤에야 스위스로 돌아온다. 스위스 용병의 신뢰는 이렇게 계속 된다. 오늘날 로마 교황청에 가면 아주 멋진 복장의 근위병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이탈리아 사람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다. 그들은 스위스 사람이다. 스위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와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끌리는 남성형이 다르다고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로는 인기가 좋을지 몰라도 연애 상대로는 인기가 없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인간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 끌린다. 이게 바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신드롬이다. 국민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좋아할까? 우리는 혜성처럼 나타나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력 있는 정치인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정치인에 끌릴 위험이 다분하다.

체사레 보르지아와 아자타사투르 왕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모술수만이 성공의 요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뢰는 어떨까? 국민의 신뢰도 성공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 권모술수와 신뢰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가다국은 인구가 더 많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였기에 전쟁에 이겼을 수도 있고 우연히 좋은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 수도 있다.

모든 군주는 성공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무기를 동원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권모술수는 나쁜 무기이고 국민의 신뢰는 좋은 무기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무기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나쁜 무기든 좋은 무기든 모든 무기를 동원하여 싸우는 사람을 이기기 어렵다. 아무리 불교의 관점에서 좋은 무기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자타사투르 왕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 세상이 험할수록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긴다. 하지만 좋은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긴다. 또한 두 사람이 가진 나머지 무기가 동일하다면 착한 무기는 악한 무기를 이긴다. 인간은 모두 선과 악을 행하며 공업을 짓는다. 악한 세상도 선한 세상도 우리가 만든 세상이다. 신뢰가 권모술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불국정토다.

좋은 수단과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이 싸움에는 지지만 좋은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 보상이 있을까? 불교는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말한다. 좋은 업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 경전에는 추상적으로 쓰여 있지만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부처님은 아자타사투르 왕을 풀어준 프라세나짓 왕에게 편안한 삶을 살 것이며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하셨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악인이니 자기 자식이나 주변을 몹시 괴롭혔을 것이 틀림없다. 아자타사투르 왕은 제바달다와 모의하여 부처님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을 것이다. 최근 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트라우마에 유전자가 변형되고 후세에 전달된다고 한다. 좋은 말과 행위도 트라우마의 사례처럼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후세에 전달된다면 착한 일은 분명 이익을 가져온다.

한 연구에 의하면 착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며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면 선한 행위는 한번 해볼만한 일이다. 불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종교이다. 무조건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지옥 같은 세간을 사는 중생에게 설득력이 없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좋은 생각, 말, 행동이 분명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부처님 말씀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韓 간화선 발전 견인한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⑳ 몽산 덕이 선사



강화도 선원사지. 몽산 덕이의 선풍은 고려에도 전해져 당시 선원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우리나라는 간화선 종주국이다. 중국 당대에 유학승들에 의해 선사상이 유입되면서 고려 말기까지 선사상이 들어왔다. 간화선은 고려 중기, 보조 지눌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고려 말기 간화선이 풍미를 이루었다. 고려 말기 나옹혜근 · 태고보우 · 백운경한 등에 의해 간화선이 발전하였지만, 이외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도 간화선이 보급되었다. 바로 몽산 덕이(蒙山 德異, 1231~1308)의 간화선이다. 몽산의 선이 유입되면서 덕이본 〈육조단경〉과 더불어 함께 간화선이 한층 발전됐다.

몽산이 한창 활동하려는 무렵은 남송이 망하고, 원나라로 접어든 시점이다. 세계를 제패한 몽골이 남송을 무너뜨리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곧 몽산이 태어나 출가하고 깨달은 뒤 선풍을 전개하려는 시점까지 선사는 전란의 시대를 살았다. 1234년 북중국을 장악한 몽골은 몽산이 22세 되던 1253년에 남송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으며, 그가 48세인 1279년 남송이 멸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섰다. 그는 몽골에 대한 저항의식 속에서 성장했다. 몽골과의 항전에 직접 참여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설은 드러나지 않고,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을 때, 순순히 따르지는 않았다. 몽산은 남송을 정복한 원나라 승상 백안(伯顔)이 그에게 큰 사찰 주지로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완강히 거절했으며, 원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선사가 대륙의 새로운 패권자인 원나라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생사의 자유를 추구한 의연한 선사로 추론된다.

송~원 과도기에 활동한 몽산덕이
이질 앓던 중 참구, 완쾌 후 출가
완산적응 일갈에 대오… 法 계승
60세에 〈육조단경〉 재편집 · 유포
덕이본 〈단경〉 韓서도 인기 유통
함께 수행 등 고려불교 인연 깊어

몽산의 행적

몽산은 고균비구(古筠比丘) · 전산화(상殿山和尙) · 휴휴암주(休休庵主)라고도 부른다. 1231년 강서성(江西省) 고안(高安)에서 태어났다. 몽산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지만 세간의 명리에 뜻이 없었다. 14세 때, 어느 승려의 〈반야심경〉 독송 소리를 듣고, 몽산이 그 의미를 묻자, 그는 죽암 묘인(竹巖妙印)를 찾아가라고 했다. 죽암은 자신을 찾아온 어린 몽산에게 "이 일을 잊지 마라. 다시 찾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몽산이 휴휴암에 정착하기 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명나라 운서주굉(雲棲 袾宏, 1535~1615)의 〈선관책진禪關策進〉에는 선사가 출가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264년 6월, 33세의 몽산은 독한 이질에 걸렸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때 몽산은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운 뒤 정성껏 향을 피우고 기도했다.

"지난 세월, 지은 악업을 참회합니다. 이 목숨이 지금 다해 죽는다면 다음 생에는 속히 출가하기를 원하옵니다. 만약 병이 낮는다면 출가해 깨달음의 등불 밝혀 후학들을 널리 구제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는 좌복에 앉아 화두를 들었다. 오래 전부터 참구해왔던 무자 화두였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에도 그는 무섭도록 화두에 집중했다. 얼마 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를 괴롭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몽산은 그해 8월 출가했다. 산문에 든 뒤에도 몽산은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승천사 고섬여영(孤蟾如瑩, 생몰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승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몽산은 이런 결심을 한다. '확연히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선사는 절강성(浙江省) 경산(径山) 허당지우(虛堂 智愚, 1185~1269)를 만난다. 35세 되던 1266년 3월, 좌선 도중 한 수좌가 향 상자를 떨어뜨리는 소리에 몽산은 홀연히 깨달았다.

몽산은 설암 · 퇴경 · 허주 · 석범 등 당대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깨달음을 일일이 점검했다. 몽산은 어느 누구와 선문답을 해도 막힘이 없었다. 그러나 복주(福州) 고산(鼓山) 완산 정응(皖山 正凝, 1191~1274)은 달랐다. 완산은 몽산이 자칫 알음알이 병에 빠질 수 있음을 간파하고, 물었다.

" '광명이 고요하게 강의 모래만큼 많은 법계를 두루 비춘다' 는 게송은 장졸 수재(張拙 秀才)가 지은 것이 아닌가?"

몽산이 대답하려 하자, 완산은 번개처럼 고함을 내질렀다. 순간 몽산의 모든 사량분별이 한 순간에 멈추었다. 선사는 비로소 생로병사의 근원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꿈속에서조차 화두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난 1267년 봄, 들에서 돌아오는 돌층계 위에서 홀연히 의심이 풀리면서 선사는 대오(大悟)한다. 이후 몽산은 완산 정응의 법을 받았다. 훗날 몽산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확고함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3년간 법답게 수행했는데도 견성하지 못한다면, 이 산승이 대신해 지옥에 들어가리라."

몽산은 강소성(江蘇省) 전산(澱山)을 거쳐 소주(蘇州) 평강부(平江府) 휴휴암이라는 작은 암자에 상주하며 대중들을 이끌었다. 때로는 서신으로도 사람들에게 정성껏 답변해주었다. 선사가 이 암자에 오래 머물러 그의 이름에 휴휴암이 늘 붙었다. 몽산은 1290년 60세에 〈육조단경〉을 재편집하여 유포시켰는데, '덕이본' 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덕이본이 근자까지 애독되는 어록이다. 이외 저술에는 〈불조삼경서(佛祖三經序)〉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 〈몽산어록〉 등이 있다.

몽산의 선사상 및 정토법문

선사의 선사상을 〈몽산법어〉에서 보면, 무자화두가 강조되어 있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꿰뚫어야 하는 것이요, 묘하게 깨치는 것은 마음 길이 끊어져야 하나니,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도깨비와 같다. 어느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무(無)' 라 하였다. 이 무자는 종문(宗門)의 한 관문(關門)이니 유심(有心)으로도 뚫을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뚫을 수 없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집어 조주를 옭아 잡거든 내게 화두를 다시 가져와라."

몽산은 선풍을 펼치면서 중생 교화에도 힘썼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염불 왕생을 권장했다. 그는 상례와 장례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전란으로 죽어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수많은 전쟁으로 가혹한 현실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염불화두를 적극 보급하기도 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시간을 가리지 말라. 혀는 움직이지 말고 마음은 맑게 하라. 염불하는 자신을 때때로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라. '이 몸은 헛되고 잠깐 빌린 것으로 곧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와 같이 오롯이 정진하면, 이 몸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서방 아미타불을 친견하리라."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念佛是誰)' 화두는 염불하고 있는 그 주체자를 화두로 하고 있다. 염불이 곧 화두가 되는 것이다. 염불하는 자신을 간절히 참구하면, 어느 순간 자성미타가 눈앞에 나타나 견성에 이른다는 것이다. 물론 '자성미타 자력정토' 는 〈육조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송나라 말기부터 염불과 선이 결합되어 '염불선' 이 발달되었는데, 몽산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염불선은 몽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고려 말 조선 초기, 우리나라 선자들의 어록에도 '염불하는 이가 누구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반조(返照)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 는 내용이 많다.

고려와의 인연

만년의 몽산은 자국민보다 고려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승려뿐만 아니라 왕실 인사와 고위관리들도 있었다. 1290년대 초 고려 불교계와 인연이 닿은 이후 고려 승려들이 휴휴암에서 안거를 지내기도 하였다. 수선사 10세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은 몽산의 법을 고려에 유통시킨 대표 인물이다. 만항이 몽산에게 편지로 게송을 보내자, 몽산은 만항에게 10수의 게(偈)로 화답하면서 선사에게 '고담(古潭)' 이라는 호를 주었다. 또한 만항은 1298년 상인을 통해 덕이본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을 구하여 1300여 년에 단경을 선원사에서 간행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 〈육조단경〉이다.

또한 보감국사 혼구(混丘, 1250~1322)도 몽산의 법을 찬탄했다. 1296년에는 원나라에 입국한 충렬왕과 고위관리 10여 명이 휴휴암을 찾아가 몽산의 법문을 직접 듣기도 했다. 나옹 혜근과 몽산은 실제 만났다. 근자에 유통되는 〈몽산법어〉는 나옹 혜근이 몽산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온 법어에 자신의 법어를 합본한 것이다.

동안 이승휴(1224~1300)도 몽산과 인연이 깊다. 그는 말년에 고려 조정에서 신념을 지키다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승휴는 간화선 수행을 결심하고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찾아 몽산에게 서신을 보냈다. 동안은 몽산이 답신을 주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관직에서 쫓겨나 궁벽한 산골에 머무는 늙은 거사에게까지 답변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선사가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편지에는 동안이 '어떻게 수행해야 화두를 깨칠 수 있는지' ,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에 대해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동안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동안거사 사간(司諫) 이승휴께서는 대장부의 지기(志氣)를 갖춘 분' 이라며, 격려도 잊지 않았다. 선사는 편지에서 '석가와 미륵이 그의 종인데 그는 바로 누구인가' 를 화두로 해서 정진하라고 했다.

한국선에 끼친 영향

몽산은 당시 중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몽산이 한국선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한국 간화선에서 무자화두 위주의 화두참구법이나 의정을 중시하는 경향, 깨달은 이후 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 등이 몽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몽산법어〉는 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 간화선의 지침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몽산화상 법어약록(法語略錄)〉은 1467년에 신미(信眉) 혜각존자(慧覺尊者)가 간경도감에서 처음으로 간행해 꾸준히 발행되었다. 오늘날 몽산과 관련된 보물, 유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가 20여 건에 이르는 것도 몽산이 한국 간화선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을 증거한다. 몽산의 덕이본 〈육조단경〉은 강원교재로 사용되었다. 이외 〈몽산화상육도보설〉 〈제경촬요〉 〈몽산행실기〉 〈행적기〉 〈염불화두법〉 등 그의 모든 저작이 국내에서 편찬되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이기 뭣꼬?!

이거요?! 2m 멀리서 작은 염불에도 소리를 엄청! 장엄 청아 하게 만들어 내 귀를 적셔주는 특수마이크구요! 시중에는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이며 이 글은 법적증서랍니다.

뻥치는거 아니가? 판단력이 덜어지면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시설전 법당서 견본 테스트시 추호라도 다르면 그냥 쫓겨갈텐데.... 누구 망신? 누구 손해? 일까요?!

몇달전 시설했는데 또 무슨 시설이고? 보살의 말에 태고종 스님 왈..... 하아! 시끄럽다! 제 한번만 잘 지내도 이런거 몇배 뽑는다 사장님! 신경쓰지 말고 퍼떡! 해주이소!

▣ 평생을 염불속에 살다 염불속에 사라지는 염불인생들에게 뭣? 이 가장 중헌디?! ....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장난감 성능차이 확인,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스님·茶人들이 묘사한 차와 수행 세계



박동춘의
고려茶문화, 그 아름다움
⑳ 고려시대 다도의 정수



차의 일미(一味)는 차를 다루는 승려의 삼매수(三昧手)로 드러냈는데, 이를 위해 좋은 차와 차의 색, 향, 기(氣), 미(味)의 정령을 드러낼 샘물이 있어야 한다. 사진은 고려시대 가루차 격불을 재현한 모습.

고려시대 문인들의 음다 풍속은 승려와 관련이 깊었다. 승원에서 베푼 명전(茗戰) 놀이는 차 문화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든 유희요, 풍류였다. 그러므로 명전엔 당대의 명사들이 초대되어 차 자리를 더욱 서권기(書卷氣)가 있는 고상한 아회(雅會)의 품격을 만들어냈다.

차의 일미(一味)는 차를 다루는 승려의 삼매수(三昧手)로 드러냈는데, 이를 위해 좋은 차와 차의 색, 향, 기(氣), 미(味)의 정령을 드러낼 샘물이 있어야 한다. 물은 차의 몸이요, 차는 물에 의해 현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를 체(體)라 하였고, 물은 용(用)이라 하였다. 차를 즐길 때 차와 물 이외도 중요한 건 불이다. 옛날엔 숯불을 피워 센 불(武火)과 약한 불(文火)을 조절하여 물을 끓였으니 이는 문무화(文武火)의 조화로 차를 다루기에 알맞은 끓인 물을 얻었다. 그러므로 찻물을 끓이는 정황을 묘사한 시문이 유독 많은 것이다. 차의 일미(一味)는 차를 마시는 주체인 자신과 차를 다루는 전 과정에서 몰입과 절제가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다도의 정수는 물을 끓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 말, 태고 보우(太古 普愚1301~1382)가 쓴 〈상당(上堂)〉은 깊은 밤, 질화로에 차 다리는 정경을 노래한 것으로, 물을 끓이는 정황의 긴장감을 이렇게 노래했다.

남쪽 성곽 아래 집을 빌려(借屋南城下)
거하게 취해 취향(醉鄕)에 누웠더니(陶然臥)
홀연 천자의 조서가 내려왔기에(忽聞天子詔)
열불 마치고 빈 항아리 마주하네(祝罷對殘缸)
싸늘한 추위 뼈에 사무치고(凜凜寒生骨)
싸르락거리며 눈발이 창을 두드리네
(蕭蕭雪打窓)
깊은 밤 질화로 숯불에(地爐深夜火)
차 끓자 차향기가 다관을 뚫고 피어나네
(茶熟透餠香)

윗글은 태고화상의 문집 〈태고화상어록〉 권 상에 수록되었다. 태고의 명(名)이 보우이고 태고가 그의 법호다. 13세 되던 해 양주 회암사 광지(廣智 1102~1158)에게 삭발염의(削髮染衣)하였고 호주 하무산 석옥 청공(石屋 淸珙)에게 법을 받은 것은 1346년경이다. 이듬해 귀국하여 우리나라 임제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용문산 소설암에서 수행하던 그에게 공민왕이 법을 물었는데, 그를 왕사로 삼아 구산(九山)을 통합하여 일종(一宗)을 만들게 했지만 완수하지 못하고 다시 소설암으로 돌아왔다.

한때 신돈(辛旽)의 질투로 속리산에 금고(禁錮)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던 그가 고려 말 사원에서 차를 향유하는 풍모를 살펴볼 수 있는 '상당'이란 시를 지었다. 이는 선승의 차 생활을 엿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그가 차를 끓이는 선방의 정황을 담담하게 그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그가 "거하게 취해 취향(醉鄕)에 누웠더니(陶然臥)"라고 한 구절에서 취향(醉鄕)은 바로 당나라 왕적(王績)의 '취향기(醉鄕記)'에서 그가 그려낸 가상세계이다. 바로 편애와 증오, 즐거움과 분노가 없는 이상세계를 그려냈다. 이런 이상의 세계는 고려의 문인 김극기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유감(有感)'에서 "만약 취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若非入醉鄕)/ 어느 때나 구속과 핍박이 그칠까(拘迫何時休)"라고 읊은 것이 그렇다. 그러므로 태고화상의 시에서 그린 세계는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천자가 그에게 보낸 칙서는 아마 공민왕이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묻기 위해 칙서를 내려 그를 가까이 두고자 했던 것이니 왕사로 책봉한 일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더구나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밤, 다관을 뚫고 나온 그윽한 차 향기는 선방을 가득 채웠을 터이다. 바로 선승의 일상은 이처럼 일미선이 구현된 공간이며 그야말로 불성이 자재(自在)한 시공간(時空間)일 것이다.

예부터 찻물이 끓는 소리를 송풍(松風)으로 은유했다. 물 끓는 소리와 차 향기, 그리고 선방과 선승이 어우러져 펼치는 차의 세계는 자재(自在)함 그 자체이다.

> 차는 體 · 물은 用으로 상징
> 다도의 과정은 몰입과 절제
> 태고보우스님, 찻물 끓이는
> 긴장감을 茶詩로 표현 키도
> 이색, 차 마신 후 변화 서술

한편 이색(李穡 1328~1396)의 '차를 마신 후 감회를 읊다(茶後小詠)'는 차를 마신 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작은 병에 맑은 샘물을 길어다가(小甁汲泉水)
오래된 묵은 솥에 노아차를 다리니
(破鐺烹露芽)
귓속이 갑자기 맑아지고(耳根頓淸淨)
코끝엔 신령한 기운 통하노라(鼻觀通紫霞)
잠깐 새에 흐린 눈이 밝아져서(俄然眼翳消)
외경에 조그만 티도 보이질 않네(外境無纖瑕)
혀로 먼저 맛보고 목으로 삼키니(舌辨喉下之)
기골은 바로 평온해지고(肌骨正不頗)
방촌의 마음 신령하여(靈臺方寸地)
또렷한 생각, 삿됨이 사라지누나(皎皎思無邪)
어느 겨를에 천하를 언급하랴(何暇及天下)
군자는 의당 집을 바로 해야 하거늘
(君子當正家)

앞의 글은 '목은시고' 권6에 수록된 시다. 작은 병에 길어 온 샘물은 차를 끓이기에 손색이 없는 명천(名泉)일 터. 이 물은 차의 신묘한 세계를 온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더구나 노아차처럼 명품의 차를 오랜 세월 사용했던 묵은 솥에 끓인다고 하니 이 솥은 그가 늘 찻물을 끓였던 익숙한 다구이다. 좋은 물과 차, 그리고 그에 적합한 다구(茶具)까지 모두 갖춘 이색의 차 살림은 소박하고 검소한 듯 하지만 차의 본령은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춰야 비로소 나타난다.

이렇게 잘 다린 차를 마신 후 그가 느낀 몸의 변화는 바로 귀가 밝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끝에 전해진 차향을 자하(紫霞)라 노래했다. 바로 자하 신령한 기운을 말한다. 그러니 이는 코끝에 전해진 차의 싱그럽고 환한 난향(蘭香)이 심폐로 퍼지면 이미 온몸과 마음은 청정 그 자체로 속세의 여진(餘塵)이 모두 사라진 상태다.

그러므로 밝은 눈으로 본 대상은 편견과 불평등이 사라졌고, 대상 그 자체로 본다는 것이니 바로 정견(正見)을 실현한 것이다. 더구나 혀로 차맛을 느끼고 이어 목으로 넘어가는 향기로운 차는 사람의 심신을 변모시키는 에너지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니 몸과 마음 어느 구석도 불평등과 편견, 아집, 아상(我相)이 사라졌으니 "또렷한 생각, 삿됨이 사라지누나(皎皎思無邪)"라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를 향유하는 까닭이며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차로부터 얻는 공력(公力)인 셈이다.

그러므로 원감국사 충지(圓鑑國師沖止 1226~1292)는 '병중언지(病中言志)'에서 차를 즐기며 수행하는 승려의 걸림 없는 삶을 노래했다.

승방에 일없어 고요하니(一室靜無事)
세상이야 어지럽든 말든(任他世亂離)
나이 들자 이내 게을러지고(年衰更懶散)
병이 깊어 노는 일도 귀찮네(病久謝遊嬉)
텁텁한 차는 갈증을 해소할 만하고
(醶茗聊澆渴)
향기로운 푸성귀 요기하기 족하네
(香蔬足療飢)
이런 깊은 맛을(箇中深有味)
장차 아는 이 없어 좋아라(且喜沒人知)

위의 글은 '원감국사가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수행자의 소박한 삶과 음다의 중요성을 잘 서술한 다시(茶詩)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감국사는 어떤 수행을 실참(實參)했던 인물이었을까. 그의 속명은 우원개로 북암노인이라는 자호를 썼다. 초명(初名)은 법환, 뒤에 충지로 개명했다. 출가하기 전 경서(經書)를 읽어 사원시(司院試)를 마쳤고 춘위(春闈)에 나아가 장원한 것은 그의 나이 19세 때이다. 금직옥당(禁直玉堂)에도 올랐던 관료로, 29세 때 원오국사 극근(圓悟國師克勤)에게 출가했고 후일 수선사의 6대 국사가 된 수행자이다. 그가 차를 마시며 수행했던 행선(行禪)의 여정이야 말로 다 헤아릴 수 없겠거니와 수행자의 넉넉한 살림살이를 잘 나타낸 〈병중언지(病中言志)〉는 수행자의 다시로는 더할 나위없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텁텁한 차는 갈증을 해소할 만하고(醶茗聊澆渴)"라고 한 말은 이미 좋고 나쁨이란 분별심이 사라진 수행의 경지를 그린 듯하며 욕심이 사라진 수행의 참맛은 먹는 행위마저 자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는 "향기로운 푸성귀 요기하기 족하네(香蔬足療飢)라고 노래했으리라. 이런 걸림 없는 삶이란 불가뿐 아니라 도교의 이상에서도 유가의 유생들이 실현하고 싶은 동경의 세계였다. 이는 수행자나 독서인(讀書人), 그리고 신선이 되고자 했던 이들의 공통된 열망이며 동경의 세계였다. 그런데 그가 "이런 깊은 맛을(箇中深有味)/ 장차 아는 이 없어 좋아라(且喜沒人知)"고 하였다. 그가 말한 이 뜻을 꼼꼼히 생각하며 화로에 찻물을 올려야 하리.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허공의 꽃을 잡으려 말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㊴ 공화(空花)

"여러분! 참된 부처님은 모양이 없고 참된 법도 모양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다만 허깨비를 두고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 설사 그렇게 해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들여우나 도깨비 같은 것일 뿐이니라. 참된 부처가 아니고 외도의 견해니라. 무릇 진정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도 취하지 아니하며, 보살이나 나한도 취하지 아니 하며, 삼계의 뛰어난 경지도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멀리 모든 것을 벗어나 사물에 구속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늘과 땅이 뒤집힌다 해도 나는 더 이상 의심치 않으며,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한 생각 기뻐할 것 없고, 삼도[三塗 · 화도(火塗), 혈도(血塗), 고도(刀塗)] 지옥이 갑자기 나타나도 한 생각 두려움이 없어야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내가 보건대 모든 법이 공한 모습(空相)이라서 변하여 나타나면 있고, 변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없어지니 삼계(三界)는 마음뿐이요, 만법은 오직 식(識)일 뿐이니 그러므로 꿈과 허깨비 같은 공화(空花)를 어째서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선(禪)의 종지(宗旨)라 할 수 있는 '마음이 부처(卽心卽佛)' 라는 말은 바깥 경계를 따라 다니지 말고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은 밖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중생의 처지다. 임제는 이 점을 다시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 참된 부처와 법은 모양이 없다고 하면서 모양 없는 것을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냐 하고 되묻는 식의 말을 하고 있다. 허상을 따라 움직일 때 부처는 이미 나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경계에 마음을 빼앗길 때 자기 부처는 실종됨을 상기시킨다.

'단하소불(丹霞燒佛)' 이라는 공안(公案)이 있다. 단하 천연(丹霞 天然 · 739~824)의 일화에서 나온 공안이다. 단하도 과거(科擧)를 보러 가다가 출가했다 한다. 그 후 마조(馬祖) 문하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법당에 들어가 불상의 목에 걸터앉았다. 이를 본 대중들이 크게 놀라 마조에게 일러주자 마조가 보고 "참으로 천연스럽구나"고 했다. 단하가 내려와 마조에게 절을 하고 "제게 좋은 호(號)를 주어 감사합니다" 했다. 이로 인해 천연이란 법호를 쓰게 되었다 한다.

오등회원(五燈會元)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단하가 낙양 혜림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추운 어느 날, 장작이 없어 법당 목불(木佛)을 쪼개서 불을 땠다. 이를 본 원주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불상을 아궁이에 넣어 태우지 않소?" 단하가 주장자로 재를 헤치면서 능청스럽게 말했다.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 하오" 원주가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와요?" 단하가 "사리가 안 나온다면 법당에 남아 있는 두 불상도 태워도 되겠소?"

이런 대화 끝에 원주의 눈썹과 수염이 빠져버렸다 한다. 〈선문연송설화〉에는 이 이야기를 두고 목불을 태웠다는 것은 뛰어난 안목에서 나온 것이고, 원주가 어째서 목불을 태우냐고 꾸짖어 눈썹과 수염이 빠진 것은 대반야의 도리를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문답도 있다.

"단하가 목불을 태웠는데 어째서 원주가 눈썹과 수염이 빠졌습니까?"

"진짜 도둑은 가난한 집은 털지 않느니라."

임제는 부처가 나타나도 기뻐할 게 없고 지옥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였다. 부처도 허깨비 지옥도 허깨비라 모두가 공(空)하여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다.

눈병 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허공의 꽃(空花)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하였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식이란 말은 〈능가경〉, 〈화엄경〉 그리고 기신론에도 설해져 있는 말이다. 〈임간록〉에 원효가 촉루수(髑髏水)를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를 깨닫고 내뱉은 독백의 말이 "마음이 생기니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법이 없어지는 것,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識)일 뿐이다"는 말이었다고 한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無我智 얻으면 곧 해탈



세상 속 경전읽기

㊴ 아법이공(我法二空)

어린이에게 막대기 다섯 개를 주고 오각형을 만들라고 하면, 막대기들의 끝과 끝이 서로 맞닿도록 고리를 만들고 오각형이라고 한다. 이 중 막대기 하나를 떼내어 "이 막대기가 오각형이냐?"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머지 막대기 네 개의 모양이 오각형이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한다. 막대기도 없느냐고 물으면 "막대기는 있다"고 한다.

범부는 오온(五蘊)이 일정 조건으로 모인 것을 나(我)라고 한다. 오온에서 색[色, 몸]을 떼 내어 "색이 나인가?" 물으면 "나가 아니"라고 한다. 수상행식[受想行識, 감수 · 표상 · 의지 · 인식 작용]도 마찬가지로, 떼낸 각각은 나가 아니다. 오온 중 어느 하나를 떼낸 나머지 네 가지도 나가 아니다. 이것이 〈무아상경〉의 골간(骨幹)으로, 인간은 오온의 일시적 화합[因緣所生]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아체[我體, 불변하는 자아(自我)라는 실체]' 가 없다는 것이 아공[我空, 生空' 人無我' 衆生無我]이다. 곧 상일주재(常一主宰)의 나(我)가 없다. 그러나 오온 각각, 나아가 제법[諸法 · 일체의 사물과 현상]은 있다. 나는 없는데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제법은 있다고 하는 것이 아공법유(我空法有)이고, 이것이 설일체유부 등 소승의 견해이다. 당(唐)의 종밀(宗密)이 지은 〈원인론(原人論)〉에서 소승교(小乘敎)의 아공(법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형체를 가진 몸[色]과 생각을 하는 마음[受想行識]은 본래 인연의 힘에 의한 까닭에, 생각생각 생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마치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 등불이 타오르듯 한다.

(이와같이) '몸과 마음[五蘊]' 은 임시로 합해 마치 항상한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범부는 어리석어 (몸과 마음이 인연의 가화합임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여 '나' 라고 여기고 이 나를 보배로이 여긴다.

따라서 탐[貪 · 명예와 이득으로 나를 왕성하게 함] 진[瞋 · 거슬리는 상황에서 나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으르는 것] 치[癡 · 이치에 맞지 않는 헤아림] 등의 삼독심을 일으키고 삼독심이 행동과 말을 발동시켜 일체의 업(業)을 짓는다."

〈原人論 T1886_.45.0709a11-a15〉

6조 혜능과 동시대를 살았던 의정(義淨 · 635년~713년)은 671년에 광주(廣州)에서 바닷길로 인도에 가 25년 동안 순례하며 대소승을 배운 후, 많은 산스크리트본 경론을 가지고 695년에 귀국하여 56종 230권을 한역하였다. 이 중 〈무아상경〉에 해당하는 내용 번역의 경제(經題)를 〈오온개공경(五蘊皆空經) T102〉이라 하였다.

〈오온개공경〉의 '오온개공' 은 '오온 각각은 나가 아니다. (그러나 오온 각각은 있다)' 라는 것으로 아공법유의 뜻이고, 〈반야심경〉의 '오온개공' 은 '오온 각각도 공하다' 는 것으로 법공[法空, 法無我]까지 말해 아공법공(我空法空) 곧 아법이공(我法二空)의 뜻이다. 예들 들어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 공이다[色卽是空]' 를 부연하자면, 색은 5근[五根, 眼耳鼻舌身]과 5경[五境, 色聲香味觸]과 무표(無表)색의 11 요소로 구성된 것이니, 상일주재의 색체[色體, 색의 아체(我體), 색 자체] 곧 색성[色性, 색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와 같이 수상행식 등 오온, 나아가서 모든 현상(諸法)은 여러 인연의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제법의 아체)가 없다는 법공(法空)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인도의 학승 하리발마가 지었고 구마라집이 한역한 〈성실론(成實論)〉에 '법무아' 에 대한 기술이 있다.

"법을 보지 않는 것을 무아라 한다. 또 경에 설하기를, '무아지(無我智)를 얻으면 곧 바른 해탈이다. 그러므로 색의 성품[色性]이 멸했고 수상행식의 성품[受想行識性]이 멸한 것이 무아로, 무아는 곧 ' 자성(自性) 없음[無性] ' 이다."

〈成實論 T1646_.32.0333a04-a07〉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닦음의 길 25

일상 모두가 수행

지금까지 붓다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개발된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행체계를 살펴보았다. 오늘날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정에 맞는 수행법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각자의 성향이 다른 만큼 그에 어울리는 여러 수행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붓다 역시 대기설법(對機說法), 즉 대중들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았는가. 수행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여 신행의 기초로 삼으면 되는 일이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문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수련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순간순간을 수행의 도량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옛 선사들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이 모두 선(禪)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어디를 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혹은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야(mindful)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계에 먹혀서 수행은커녕 정신없는(mindless) 중생의 삶이 계속될 뿐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 몸(身)과 입(口), 생각(意)으로 지은 행위의 결과물이다. 흔히 업(業)이라 불리는 삶의 법칙에서 벗어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과거의 반복된 행위가 무의식에 쌓이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업의 관성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술이나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상을 수행의 도량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대상에 먹히면서 살아온 과거의 업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수행이다. 특히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해서 훈련하는 것이 좋다. 매일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1주일에 특정 요일을 정해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수행의 주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수행으로 쌓인 에너지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수행이 깊어지면 일상의 순간순간을 공부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목욕 또한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 그 순간 욕실은 단순히 몸에 쌓인 때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惡業)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발원하는 거룩한 도량이 된다. 이른바 목욕 명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운전도 수행이라 생각하면 훨씬 평온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마음이 분주하면 운전 또한 불안하며, 평온한 마음일 때 안전한 운행이 뒤따르는 법이다.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Thich Nhat Hanh)은 운전하면서 만나는 빨간 신호등을 부처님으로 여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빨간 불은 단순히 자동차를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빨리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간 신호등은 나의 주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로 다가온다. 비록 잠깐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신호가 바뀔 때까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한다면, 자동차 안은 거룩한 수행의 도량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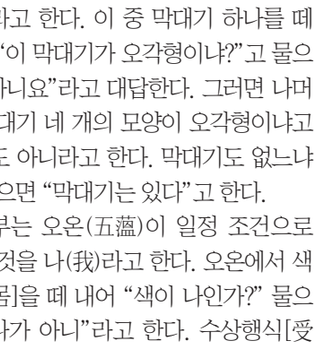
일상을 수행이라 생각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이를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먹히면 화를 나게 한 대상을 탓하면서 짜증만 낼 뿐이다. 마치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화재의 원인만 탓하는 것과 같다. 그 순간 나 자신은 화에 완전히 지배를 당한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수행이라 생각하면 삶의 방향은 붓다를 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상과 경계에 먹혀서 허우적거리는 중생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지 조용히 성찰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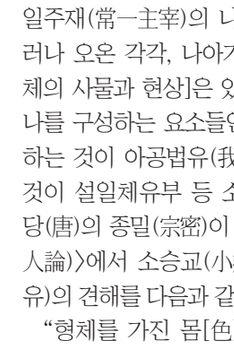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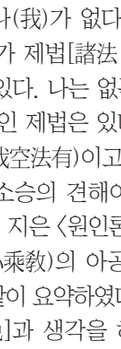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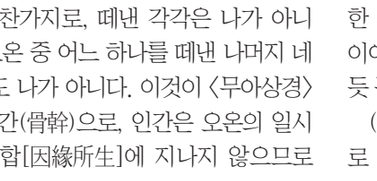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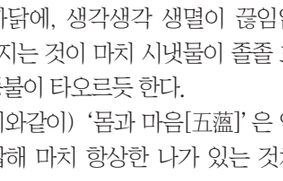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7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0년 10월29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바라무 및 착복무
  3. 수륙대 의식 (매주 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철학박사 –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 – 8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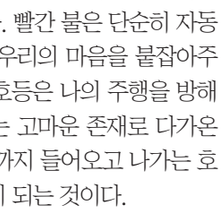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불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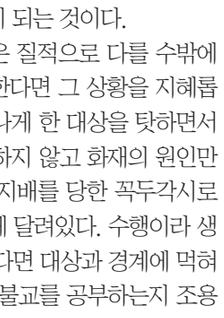
원장 원 명 합장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평화 가장한 분노, 관조로 해결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⑳ 자비와 분노



20-1 마음의 평온을 흔들어놓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분노임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근본적인 번뇌라 하셨지요. 일상에서 만나는 자잘한 분노, 관계를 그르치는 분노부터 생명까지 빼앗는 분노, 무차별적 살인, 대량 살육...등 분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의와 평화를 가장한 분노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분노, 의로운 분노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고 유익할 때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사회적 공분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증오와 적개심을 정의로 포장한다면 결코 선하다 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 번뇌라는 말은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 즉각 괴로운 상태로 됩니다. 괴로움은 잔잔한 평온함이 깨지고 혼란과 격동을 일으킨 수면과 같습니다. 이 거친 감정은 화와 미움, 혐오에서 증오로 커져갑니다. 마음의 격랑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살해 계획부터 살인까지 저지르고, 아니면 칼을 자신에게 향해 자해 행동과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수많은 전쟁과 살육 또한 이러한 괴로움의 표현이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내면의 괴로움인 번뇌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하셨군요. 내면의 불길이 잡히지 않았는데 겉으로 평화가 왔다고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지요. 내면의 불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가족들과 사회 생활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3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화를 참고 '인내하라.' 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게 가능했나요? 참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분출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참는 것도 아닌 제3의 방법(중도)은 무엇일까요? 모든 영적 전통의 가르침은 번뇌의 일어남을 '바라보라' 입니다. 화나는 과정을 낱낱이 보는 것이지요. 화를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반응 대신 멈추고 바라보고 깊이 살펴보는 숙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20-4 화는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을 '인(忍)' 자를 수없이 써보고 되뇌여도 막상 상황에 부딪치면 까맣게 잊어버리곤 하지요. 이때 어찌 해야 할까요? 명상이 답입니다. 명상을 배운 경우 화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머리끝까지 펄펄 뛰는 화 속에서 호흡을 바라봅니다. 호흡이 어떻게 쉬어지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이제 화가 나는 일련의 과정을 바라봅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고 혈압이 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눈은 험악하게 부릅뜨고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반응하는 몸의 변화들이지요. 이러한 몸의 변화들과 함께 마음의 변화도 바라봅니다. 화가 치밀어 안 된다구요?(웃음)

그렇다면 호흡을 깊고 크게 쉬어봅니다.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길게 내뿜습니다. 다시 깊이 들이마시고 더이상 마실 수 없을 때에 숨을 멈추고 온몸을 긴장시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참으며 주먹을 꽉 쥐고 팔과 다리, 얼굴, 그리고 온몸의 모든 근육에 힘을 잔뜩 주었다가 내뿜으며 온몸을 이완시킵니다. 풍선에 가득 찬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서서히 길게 내뿜으며 얼굴 어깨 목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까지 긴장을 풉니다. 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보통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화를 돌아봅니다.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나요? 어떤 경우 화가 치미는지 눈을 감고 깊숙이 살펴봅니다.(1-2분)

20-5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들 말합니다. 무시란 무엇인가요? 무시라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뭔가 기대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가 무시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전단계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실망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나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숙고해봅니다. 사랑, 이해, 관심, 존중을 받고자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것들을 잃은 아픔이 있지 않나요? 분노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하는 마음이 숨어 있군요. 그러니 화내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같이 싸우는 대신

내면의 평화 깨뜨리는 번뇌
인내가 근본적 처방은 안되
중도적 해결방법 '바라보기'
호흡 크게 쉬고 제3자 되면
감정이 내가 아님을 깨달아

상대가 무얼 원하는지 무얼 두려워 하는지 보는 게 올바른 대응이군요.

20-6 결국 분노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군요. 미움의 뿌리도 욕망에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한 단순히 '화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는 금지나 권고는 상처를 어루만지기 보다 불씨를 덮어버리거나 덧칠하는 것입니다. 욕망 가운데 생존(의식주)에 대한 기초적 욕망을 제외하면 모두 정신적 욕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욕망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태어날 때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관찰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안락한 모태로부터 좁은 산도를 지나 외부 세상으로 쫓겨나는 경험은 너무 격렬한 고통입니다.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 그저 숨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모든 불쾌한 감촉에 노출되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존 욕구가 조건없이 아낌없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인 아기는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왜 이리 추운거야 왜 채워주지 않는거야 왜 나를 방치하는 거야.' 라며 울부짖지 않나요? 우는 것 외에 표현 수단도 없는데 운다고 화내고 손찌검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고립무원감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비참할까요? 그럼에도 방어할 수단과 능력이 없어 앙앙 울 수밖에 없는데 학대라니요.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변함없는 충족의 환경이 조건 없이 즉각 보장되어야 더이상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신있게 살아갈 믿음과 안정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0-7 이 믿음(기초적 신뢰)이 형성되어야 아이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들고 먹는 것도 거부하고, 싫다고 주장하고 떼를 쓰고... 자기 주장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외부와 관계를 맺을 여유도 생기지요. 주변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붙잡아주지 않아도 걸으려 애쓰고 마침내 홀로 서고 걷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직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고,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욕구의 표출이 무한으로 충족될 수 없고 즉각 충족될 수도 없다는 좌절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적절한 좌절을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와야 아이는 독립을 이루지요. 이렇게 독립을 원만히 이룰 때 비로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은 부모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연유하고 그것 역시 대물림된 결과이지요. 결국 아이는 티없이 자라지 못하고 기탄없이 자라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눈치밥을 먹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아부해야 됩니다. 분노가 두려움 때문에 억눌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분노는 자유로이 표현되어져야 하고 적절히 수용되어져야 분노를 다스리는 법도 자연스레 배울 수 있게 됩니다만, 어른스런 아이로 키우려는 성급함과 완벽주의 때문에 부모들은 이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배우자와 갈등, 시부모와 갈등 경제적 곤란 등 해결하기 벅찬 문제들이 겹겹이 옥죄이면 부모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힘이 없게 탈진되지요. 게다가 부족한 보살핌마저 동생이 출현하면 관심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예 관심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 아이는 사랑과 관심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분노를 동생에게 여과없이 표출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처절하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분노는 사랑의 투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점적 사랑을 누리던 아이는 늘 그런 사랑을 기대합니다. 조금만 부족하여도 짜증이 납니다. 주변에 투사하여 불만을 외칩니다. 왜 이렇게 못 해주느냐고 외쳐댑니다.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파당을 조직하고 힘을 누리려 합니다.

20-8 분노에 숨어 있는 이 두려움을 내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서 볼 수 있다면 연민의 마음(가여움)이 피어납니다. 가여운 마음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느껴질 때 분노의 반응(싸움) 대신 안아주고 수용하는 자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보편적인 사랑은 에고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을 잊고 철길에 뛰어들어 어린아이를 구해내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에고에 덮혀서 발현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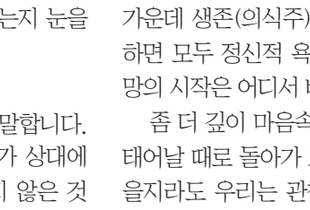
20-9 마음 속 깊은 곳에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바깥에서 찾는 데 익숙하고 밖으로부터 얻으려 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했지요. 그 사랑이 외부의 누군가가 채워주리라는 환상을 깨지 못하면 영원히 외로운 실패자로 삶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본질인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고 가 없는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진실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현재 마음을 바라봅니다. 에고의 작용을 바라보고 '아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님' 을 확연하게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분도 고통에서 벗어나가를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도 행복하기를
내가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저분도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들도 평화롭기를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13호 | 15 | 전면광고

대웅(大雄)께서는 스스로 깨달았고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쳤으며
겁을 지나면서 눕고 잠이 없었거늘
어찌 잠을 잔다 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보살강신품》에서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010-7307-1727

"록명법 특강"

전원귀자(부동산횡재), 비재성, 청룡(횡재), 지배살, 파택살(돈빌려주면 못받음), 샴태성, 팔좌성(승진,합격운), 일해, 해신자(승소운), 급각살, 귀한자, 천혁살(죽음,중병운), 록귀첩답(부귀명), 천합, 천왕(창업성공), 일좌천록(아내덕), 연귀일좌, 국인신(인덕, 인기)
010-7189-767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D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배우자 구함

●남61세 경북
●직업 : 철학교육 · 교수
●전원주택에 거주할 분
●여성은 '거짓이 없는' 여성분
●문자주세요
010-4014-8822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010-8833-4416

···

기도 부전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
010-2078-9595

···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
···
010-8721-2198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희망소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특수기도법을 정통으로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비구·비구니 모집

3년 정진 도량인 무일선원 무문관에서 결원이 생긴 자리에 선착순 비구, 비구니 각 1명 모집합니다.
•휴대폰 일절 사용 못함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일종식, 묵언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 무문관
문의 : 054-771-835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1일 [월 4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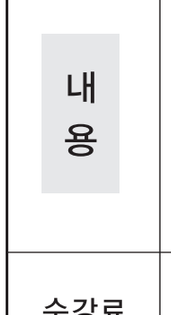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3호 | 16 | 전면광고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온갖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가르침을 설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지장십륜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명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읍
- 누워서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암치유 명당
- 십승지(해발650미터)
- 전 1만평 / 주택(55평) / 옛집(25평)
- 평당 13만원

010-5758-7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정말 좋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857-281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화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010-2949-3688

토굴(급)안내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4270-33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010-2727-6899, 02-488-0180

포 교 당 급 매

- 위치 : 서울 3호선, 6호선, 연신내 역에서5분거리
- 평수 : 38평,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5만원
- 방1, 주방1, 화장실2, 시설비 8백만원, 주차가능, 즉시법회 가능, 몸만오시면됨

010-8809-9979
010-2804-844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진보면 소재지
- 부지 : 총607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 법당25평, 요사30평(판넬 조립식)
- 가액 : 1억 3천만원
- 법회즉시 가능 주차시설완비

010-9504-7259

인천 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창고형, 1층 공양간(방3개,화장실) 1층 방3개, 화장실, 3층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 ※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오래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종교용지 912평,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건물, 단청, 공원같은 암자, 둘레에 60년된 큰소나무 많음, 신도있고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함, 동서울에서 1시간 가량
- 1억5천 안고 3억 합 4억5천

010-3535-7906

◈◈◈
서울·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포 교 원 안 내

◈◈◈◈
서 울
포교원
양도합니다
◈◈◈◈

010-3714-1018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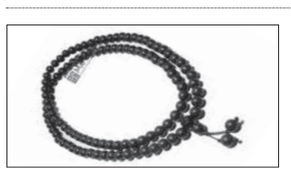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女) 스님, 저는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 싶어서요.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집의 부엌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개미가 물에 씻겨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지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휴, 개미야. 부디 네가 살 데서 살아 다오. 여기서 살지 말고 네가 살 곳에서 살아야지 왜 여기서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아휴! 개미야.' 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거기서 나가 줘.' 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심(無心)에서 그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집에를 들어가 보았더니 부엌 씽크대 위 같은 데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가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이상하다. 왜 개미가 한 마리도 없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개미가 좋아하는 설탕이니 빵 부스러기니 하는 거를 일부러 놓아 보았어요, 부엌에다가. 그랬는데 개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개미가 안 오는 거예요. 부엌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개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서 거기도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아! 이 마음과 풀 한 포기가 본래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스님은 말씀하셨는데 아, 그런가 봐. 내 마음이 개미와 통했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깝고 가슴 아파했던 게 개미하고 한순간에 통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런 건지 아니면 개미가 여기가 살기 싫어서 간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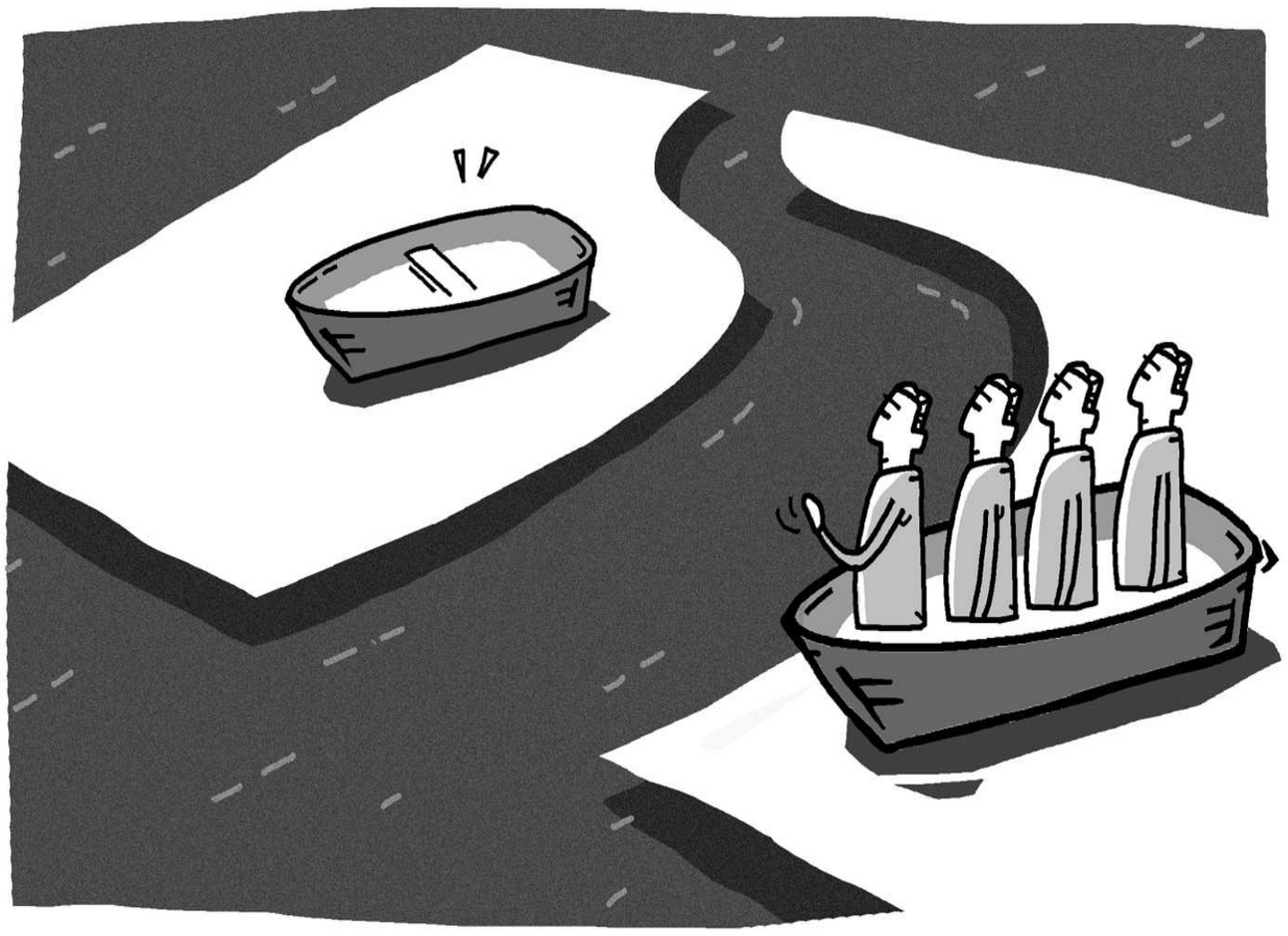
큰스님 좀, 좀 믿어 봐요. 하하.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한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고거 하나를 체험했을 때는 그 줄을 잡고선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야 돼요.

질문자3(女) 네.

큰스님 풀 한 포기, 지렁이 하나, 또 진드기 하나,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전부가 다 부처님의 뜻이니까, 전부 불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아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주와 직결이 돼 있고 세상과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중단을 다 치워 버렸어요,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으려고. 그랬더니 자기 몸을 막 때려서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건을 치우되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나한테로 다 넣고 그 물건만 치워야 되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데서, 너는 너고 나는 나인 데서 치우니까 그쪽에서는 내 몸을 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되면 모든 각처 각급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서 벌써 무심 도리(無心道理)에서 중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도 모두가 응집을 해 가지고 같이 이끌어 주는 중생들이 보살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현(普賢)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3(女)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마음이 그 많은 개미에게 다 마음이 전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니까 이제는 풀 한 포기를 보아도 함부로 뜯지도 못하겠고, 어느 벌레 한 마리나 사람 누구를 보아도 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큰스님 그러기에 옛날 선지식들은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아서 저렁 저렁 저렁 하고 딛고 다녔어요, 미리 달아나라고. 그 소리를 듣고 밟히지 말고. 이 식물 하나 무정물 하나도 전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 내면의 세계에서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와도 낫게 되는 동기가 이 모든 걸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죽일 수가 없거든. 이래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막히게 할 수는 없거든, 또. 그러니까 길을 틔워 주지. 남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여기선 벌써 알고 자기가 자기를 사기당하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싹 돌아서 옆으로 가게 만들지.

이렇게 묘한 법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칼을 떨어뜨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몸뚱이 있을 때 알아야지 몸뚱이 없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습니까. 죽어서도 중생의 의식이 그냥 있어서 여기서 그냥, 그림자 쫓아다니듯이 나와서 와글와글하니 한 발짝도 떼 놓을 수 없지, 또 강을 건너가려 하니 그 영혼이 자기가 이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의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빠져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지. 배가 올 때를 기다리니 몇천 년을 그 강가에서 거닐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그 블랙홀이라는 불바퀴 속을 넘어서야 되는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지. 마음이라는 게 타 죽는 게 어딨고 타 죽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립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개미 하나 그러는 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만물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놀게 되고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하늘을 보고 기가 막혀서 앙청을 하고 땅을 보고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질문자4(男) 제가 금방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을 때에는 별생각 없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느끼는 거는 심장 뛰는 것만 느껴지고 다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한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게 뭣고?'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지마는 '이게'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기 오게 된 그 어떤 인연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지만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걸 의심을 하면서 화두처럼 참구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주인공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큰스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뭣고' 도 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 뭣고'라는 말에 착이 붙으면 끊어질까 봐 두렵고, 또는 무기공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뭣고? 이게 뭘까?' 하는 것에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당당히 '네가 있으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하고 '이게 뭣고?' 하는 것하고, 수박을 놓고 '이게 뭣고?' 하고 있는 거하고 그냥 칼로 탁 잘라서 먹어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깐 놈의 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칼로 잘라서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습니까? 이왕지사 배낭 지고 한 번 나왔다가 이 모습은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 맛을 봐야 먹고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지 맛을 보

☞ 18면으로 계속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시역주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뭉쳐놓고 뭉쳐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 17면에서 계속

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일체 만법이 벌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 자기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자기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 가지고 세상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이치를 꿰뚫어서 알기 위해서는 또 놓고 뭉쳐 놓고 뭉쳐 놓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그냥 나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렇게 보임(保任)을 하지 않으면 역시 또 미(迷)해지니까요. 세상의 도리는 너무나 즐겁고 좋은 세상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가다가 정히 그것이 사사로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남이 불쌍해서 쓰인다거나 또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쓰인다거나 이런다면 가차없습니다.

엊그저께도 이사를 가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그냥 젖는 겁니다. 이게 잘사는 집이 이사를 가는 것 같으면 괜찮아. 못사는 사람이 이삿짐을 그 차에다 실어 가지곤 거기에 사람도 타고 이래야 할 텐데 비가 오면 엉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사하는데 이사 갈 동안만이라도 비가 안 오게 좀 해 주세요." 그러길래 "날더러 '해 주세요'가 아니다. 네가 해라. '나 갈 동안까지 비가 안 오게 해야지 비가 오면 어떡하느냐.' 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테레비에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했다는데 이사할 동안은 비가 안 와서 잘 갖다 놓고 나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더랍니다. 하하하. 이렇게 사람이 비를 피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사람을 피해 주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걸로 한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질문할 사람 또 없습니까?

질문자5(男)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저도 공부삼아서 이사에 관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분처럼 가난한 이사인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이사 가는 것을 빨리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이 안 나고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스님이 지도하신 대로 주인공에다 이제 턱 맡겨 놓았는데, 저한테 이사를 권했던 분들이 "이사를 언제 가려느냐? 갈래, 안 갈래?"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 제가 잘 몰라요. 맡기고만 있지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노릇인가.' 저 스스로도 주인공한테 맡겼는데 이거 잘못 맡겨졌는가. 그 여러 가지로 좀….

큰스님 맡기는 도리도 이렇습니다. 맡기기만 해서도 이게 딱, 침을 딱, 정면에 찌르는 소리가 못 됩니다. 정히 급하면 '당신만이, 당신만이 가게 할 수 있다.' 또는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을 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 마음이 정돈되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맡기세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그대로 눌러앉는 게 좋겠느냐, 가는 게 좋겠느냐?' 하고 잘 생각해 봐서 눌러앉고 싶으면 그냥 눌러앉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는 거보다도 댁에서는 눌러앉는 게 더 좋을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아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서로 마음도 알아주고 돌보아 주니깐 말입니다.

질문자6(男) 스님, 저는 이제 스님을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 7월에 우연히 『도(道)』라는 책을 보고 그다음에 『무(無)』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뵙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묻는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겨라." 그러셨는데 지금 개구리 찾아 나선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엄마 곁에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마들이 주인공을 몰라서 그런 건지 또는 아이들이 주인공을 몰라 그런 건지, 이것을 어떻게 알려 주실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무슨 애들이?

질문자6(男) 대구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집을 나가 가지고 지금 아마 100일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 중에는 혹시 스님을 아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납치를 당해 가지고 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전부 믿는다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지금 아이들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연 따라서 온 업보라고 볼 수 있겠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붙들어서 방에다 앉혀 놓았는데 목말라서 죽겠다고 그래서 물 한 그릇 떠다 주니까 코를 박고 죽었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거, 또 영계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것도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공부! 물론 세상이 바뀌어지고 온통 땅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두가 잘 있다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면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죠.

질문자7(女) 전번에 스님께서 KBS에 오셨을 때 먼빛으로 뵈었는데 가깝게 이렇게 뵈오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큰스님 예.

>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 자기로부터 생겼다는 그 점을 상세히 아실 것 같으면
>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질문자7(女) 다름이 아니옵고 어느 자식이든 다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한 10개월째 두드러기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고 그런데, 제가 금방 머리에 스쳐 가는 생각이, 제가 한 20년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제가 불에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머리에 싹 스쳐 가면서 가슴이 막 떨리고 이렇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스님 뭘 태웠다고요?

질문자7(女) 저, 바퀴벌레요. 그런 걸 제가 태운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머리에 스쳐 가는….

큰스님 그것이 인간의 양심이죠. 허허허. 그게 인간의 양심인데, 바퀴벌레 몸은 비록 없어졌으나 그 바퀴벌레가 타 죽을 때 그 애틋한 쓰라림 그런 것도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질문자8(女) 스님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저의 남편이 어쩌다가 그런 직업을 붙들었어요.

큰스님 무슨 직업요?

질문자8(女) 돼지 새끼를 잡아서 식당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 직업이거든요. 이제껏 그런 일을 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그랬는지, 죄를 받아서 그랬는지 항상 마음에 그렇게 걸려요. 저는 통 건강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째 갑자기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큰스님 그럴 거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돼지 새끼가, 모습을 돼지로다가 태어났으니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시키면 외려 잡은 것이 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생각 차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깐 주인공에다 맡기시면서 모든 게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인도환생을 할 수 있게끔, 당신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병에도 영향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먹어도 괜찮습니까?

큰스님 장어 같은 거 잡으랬습니까, 어디? 하하하.

질문자8(女) 장어 같은 거 그런 거 고아서….

큰스님 예, 고아서 그 물을 먹어도 좋은데 절대로 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산 거를 토막 칠 때에 토막 쳤던 그 자리를 먹으면 누구든지 병이 들어요. 그건 전부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절대로 산 거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분열이 된 사람들을 보면 산 짐승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갖다가 둘씩 셋씩 정신병자로 만들고 또는 불구자로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현실에 알고 그렇게 했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었다면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질문자8(女) 그러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큰스님 직업에 귀천이 어딨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좋죠. 그런데 돼지를 백 마리를 죽였다고 해도 한 사람만 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하하. 그런 법이 부처님의 묘법이죠. 영은, 이 영혼이라는 건 그냥 백, 이백, 천 개를 갖다가 한데 모아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문제가 불가사의한 문제들이지만 그거는 무심(無心)의 도리, 도법이기 때문에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일 때마다 모든 거는 주인공에 맡기시고, 잘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천도를 시켜 달라는 둥 환생을 시켜 달라는 둥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신만이 처리를 해 주실 수 있다.' 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관하세요.

내가 애들더러는 그럽니다. "친구야! 이 친구만이, 네 친구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한마음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주인공만이 이거를 해 줄 수 있다." 만날 이렇게 사람 봐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하는 거 일러 준 대로 하세요.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그만하면 한 얘기만 하고 그만두죠.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큰스님께서 아마 3월 달이 생신인데 어느 날인지, 그것도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여 앉아 있는 데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첫째, 대장부가 방귀 씨 눈을 왜 틔우지 못하는가? 둘째, 대장부가 귀신 방귀털을 더하고 덜함도 없이 먹여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가? 세 번째, 대장부가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왜 끊어 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한 사람도 대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산천은 두루 푸르른데
대장부의 살림살이가
한 손 들어 하늘을 꿰어 돌고
한 발 들어 땅을 디디니
일곱 발짝 떼어 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럼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는 물러서지 않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도 내 마음을 발견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두려움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담하게 나설 수도 있는 건데…, 하하하.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모두 웃고만 계시니깐 모두 도인들만 계신 모양이야. 하하하. 그럼 이걸로써 끝을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만다라



태양의 햇살을 그렸을까?
산양의 뿔을 멋지게 그린 것일까?

그냥 재미삼아 아무렇게나 그렸을까?
재미삼아 그리기에는 좀 철학적이다

멀리서 보면 꽃처럼 보이기도 하겠다

그럴 거다.
산양도 되고, 태양도 되고,
꽃이야 당연히 되겠지

그럼 만다라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이 그림은 대충 지나치듯 보면 알기 어렵다. 그림 안에 산양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 나도 처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꽃을 재미나게 그렸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한참 동안 자세히 보았더니, 그 그림 안에 산양이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산양의 뿔, 주둥이, 다리 등이 주변의 선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산양의 뿔과 주변의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꽃처럼 보인다. 요즘의 추상화를 보는 듯하다. 무슨 뜻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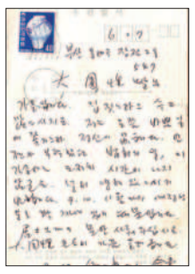
겨울 끝자락,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어올 때, 엄마 닮은 귀여운 산양이 새로 태어났다. 새끼 산양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냥 신나게 뛰어다녔다. 덩치가 커지면서 뿔도 멋지게 달았다. 더러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우열을 가리기 위해 싸우기도 했다. 우두머리가 되어 긴 밤을 경계심으로 보내고, 새벽녘 멀리서 동이 트면 그때서야 무릎을 세우고 온몸에 묻은 어둠을 후드득 털어 내며 해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뎠다. 늑대를 만나거나 사냥꾼의 화살을 피해서 혼비백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힘차게 달리고 멋지게 살다가, 다 내려놓고 다시 하늘로 땅으로 옮겨 갈 때가 되어 모든 만물과의 연결을 감사함으로 품고서 본래 하나였듯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산양이 일궈 낸 만다라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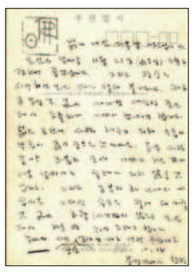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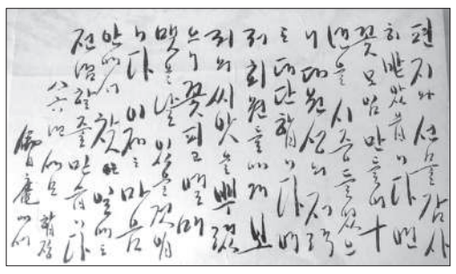


⑳ 법정 스님 3

별나라 가신 어린 왕자 스님







〈서신 1〉
가을입니다. 집 짓느라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요즘 바쁜 일에 쫓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언젠가 부탁했던 법회의 일, 이 가을에는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군요.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예정된 일로 꽉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사님께도 문안 사뢰어 주십시오. 대원성 큰소리 가끔 들려옵니다.
1984년 9월 13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맑게 개인 가을날입니다. 모임의 날짜를 11월 21일(수요일) 오후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시민회관 같은 데는 절대 불가하고 따로 돈 들일 것 없이 새마당 예식장 같은 데서 조촐하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넓은 공간에 사람 채우기 위해 어중이떠중이 긁어모으는 것 보다는 들을 사람들만 조용히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을 날씨에도 실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차 보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숙소는 절에 폐 끼칠 것 없이 호텔 (시끄럽지 않는) 같은 데서 하루밤 쉬어오려고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결정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3〉
편지와 선물 감사히 받았습니다. 연꽃모임 만들어 십년을 시중들었으니 대원성의 저력도 대단합니다. 여러 회원들에게 보리의 씨앗을 뿌렸으니 꽃피고 열매 맺을 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 안에서 찾는 일에도 전념할 줄 믿습니다. 1986년 세모 불일 합장

가을에 주신 서신과 세모에 주신 서신이다. 서신도 나이를 먹는 것 같다. 오랜 시간이 흐른 오늘 다시 꺼내보는 서신에서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당시에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 있다. 서신의 짧은 글에서 스님의 삶이 진하게 느껴진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것들로 공부하셨던 스님이었다.

스님은 시간과 세월을 바람 한 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 보셨고, 그 자연이 주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가을입니다", "맑게 개인 가을날입니다"고 시작하는 스님의 서신을 이 가을에 다시 꺼내 보니 스님의 옛적 모습이 더욱 진하게 떠오른다.

스님이 원적에 드신 지도 10년이 지났다. 스님은 본인의 책 〈무소유〉에 남긴 '미리 쓰는 유서' 에서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고 하셨다. 그리고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 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도 하셨다.

스님은 이미 생전에 별나라에 사셨다. 늘 훨훨 날아다니셨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았고, 어떤 것에도 넘치지 않았으니 스님이 살던 세상은 별나라였고, 삶은 늘 훨훨 날아다닐 만큼 가벼웠다. 지금 어느 별엔가 계실 스님을 상상해 본다. 혹여 내생을 굳이 받으셨다면 이 땅 어딘가에 계실 스님의 모습도 떠올려본다. 어느 곳에 계시든 늘 곁에 계신 듯하다. 합장.



1979년 필자의 집을 찾았던 법정 스님.



현대불교신문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